김정일장군님은
조국통일의 구성!
김정일장군님을
통일대통령으로!

통일아리랑

6.15공동선언은
조국통일의 이정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자!

2002년 3월 29일 금요일 ≪통일아리랑≫편집위원회 57호

F-15K 선정, 시민사회단체 반발

시민사회단체, 청와대 앞 규탄집회

28일 청와대 앞에서는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이하 F-X사업)과 관련한 집회가 두 차례 열렸다. ≪F-15도입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과 ≪F-15K 선정 철회≫ 촉구 집회.

지난 27일 국방부가 F-X사업의 1단계 평가내용을 공개한 결과, 사실상 미국 보잉사의 F-15K가 확정되자,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기 시작한 것이다.

오전 11시 청와대앞에서 사회당은 F-X 사업 1단계 평가를 규탄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회당은 F-X 사업 과정의 조작의혹 규명과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사회당 원용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차세대 전투기사업은 시작부터 특정기종 편들기와 공정성 시비로 얼룩졌다≫며 ≪우리나라가 30년 이상 된 퇴물 전투기 F-15K를 5조원이나 들여 구입하는 것은 단지 재정난에 빠진 미 군산복합체를 위해 국민의 혈세로 경제원조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F-15K를 차세대전투기로 승인하는 최종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거부권≫행사를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6개 단체는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F-15K 선정 철회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F-15K 선정은 자주 국방의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부시 정권의 부당한 압력의 결과≫라고 비판한 뒤, ≪타당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결여한 F-15K 선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이승헌 국장은 이날 규탄발언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국민의 여론을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반미 정서를 읽고 국민의 혈세 5조원 이상을 무기 사는데 써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 단체들은 지난 7일부터 F-15K를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여온 바 있다.

이날 집회는 6개 단체의 항의 결의문과 항의서한을 청와대에 접수시키며 마무리됐다. 이들은 집회 장소에서 3백여 미터 떨어진 청와대를 향해 F-15K의 철회를 요구하면서 함성을 지르는 것으로 자리를 정리했다.

허주현기자
오마이뉴스 2002/03/28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가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위대한 **김정일**령도자께서 주석단에 나오시였다.

김영남, 조명록, 홍성남을 비롯한 당 및 국가지도간부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정들이 토의되였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주체90(2001)년 사업정형과 주체91(2002)년 과업에 대하여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0(200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주체91(200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내각총리 홍성남이 첫째의정, 재정상 문일봉이 둘째의정에 대한 보고를 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사업보고와 주체90(2001)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을 승인함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91(2002)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각각 채택하였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토계획법을 채택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조선중앙통신 2002/03/27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 회의

공화국북반부에서 대미분노의 기운 고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에서 근 70만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사장비들이 동원된 가운데 벌어 지고 있는 미국, 남조선의 통합전쟁연습에 대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적들의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멸적의 투지를 가다듬고 있다. 이번 전쟁연습이 벌어진 때로부터 지난 며칠동안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대미분노의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조선외무성대변인과 사회단체들에서 담화들을 발표하고 조선각지에서는 현장규탄집회들이 련일 진행되였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 말 굳은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대중보도수단들은 미제와 결판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보여 주는 글들을 련일 크게 취급하였다. 텔레비죤과 라지오방송들에서는 미제침략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길 우리 군대의 의지를 담은 문예물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

요즘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의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조국을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입대를 탄원해 나서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제호전광들에게 우리의 총대맛을 보이고 결판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지금 강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는 않으며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자도 무자비하게 타격하고 섬멸할수 있는 멸적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것이 조선의 대답이다.

만약 원쑤들이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의 포성을 울린다면 그것은 아메리카장송곡으로 변할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02/03/27

2 노작
- 주체사상에 대하여

4 세기와더불어
- 5장 1절 수난당한 대지 (1)

6 칭송
- 달라진 세상
- 나무조각 ≪사자를 다루는 용감한 사람≫

7 구국의 소리
- 집안싸움으로 깨질 조짐 보이는 한나라당
- 구국의 소리 뉴스 – 3월 27일
- 이회창의 부정비리는 밝혀져야 한다
- 반민족매문지 조선일보의 반북히스테리적 발작

9 조선중앙방송
-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홍성남총리의 보고

11 평양방송
- 민족대단결의 새 전기를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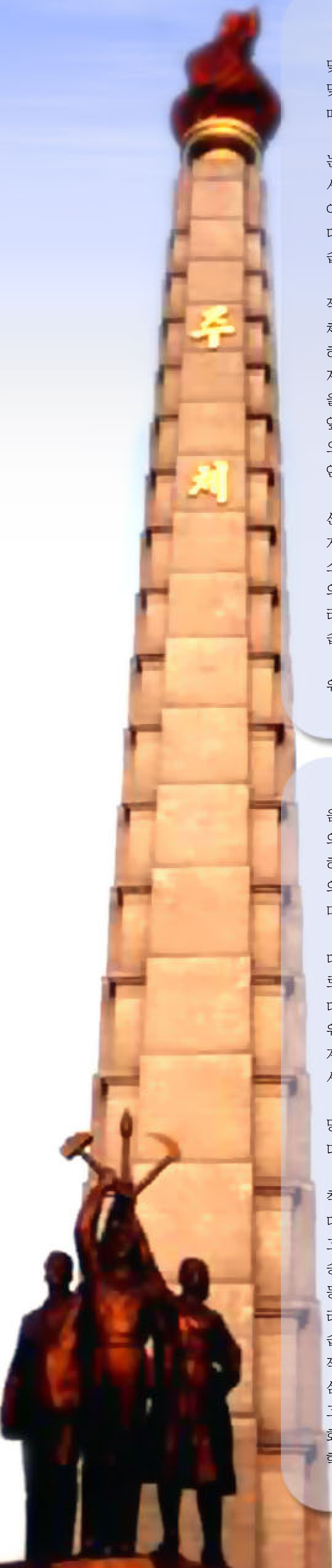
16 조국통일3대헌장
- 통일운동의 진두에 서시여 (5)

12 아리랑뉴스
- F-X 사업 담당자 고발, 정보공개 청구
- F-15K선정으로 한국내 반미감점 고조
- 민주당 ≪새벽21≫, F-X사업 투명한 결정 촉구
- 문화 · 예술계 인사도 발전소매각 반대 선언
- 장애해방운동가 최옥란씨의 삶과 죽음
- 한미냉전세력, 또 딴지 거나
- 올해도 안티조선운동은 계속된다
- 4.3 유족회 ≪월간조선≫에 11억 소송

15 운동강좌
-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전략전술 (1)

주체사상에 대하여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낸 논문 - 주체71(1982)년 3월 31일



우리는 멀지않아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전국주체사상토론회를 가진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수령님께서 반세기가 넘는 오랜기간 우리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시면서 이룩하신 사상이론적 업적에 대하여 긍지높이 총화하였으며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정당성을 다시금 힘있게 시위하였습니다.

주체사상은 수령님의 심오하고 다방면적인 사상이론활동의 고귀한 결실이며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것은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혁명업적에서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합니다. 수령님께서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앞에 혁명승리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였으며 인민들의 혁명위업수행에서 역사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끌어오신 조선혁명의 역사는 위대한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되고 전면적으로 승리하여온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 있으며 우리시대의 위대한 혁명적 기치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은 주체사상의 기치 밑에 개척되고 승리하여온 우리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역사적 위업입니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위업을 실현하려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의 진리를 체득하고 철두철미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기치따라 나아갈 때 어떠한 난관과 시련도 이겨내고 혁명과 건설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반세기가 넘는 혁명투쟁역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심장깊이 간직하게 된 신념입니다.

나는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앞두고 전국의 사회과학자들과 이론선전일군들이 모여 주체사상과 그 위대한 승리에 대하여 토론하는 이 기회에 주체사상의 원리적 문제들을 가지고 말하려고 합니다.

1. 주체사상의 창시

진보적 사상은 사회역사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민대중은 진보적 사상에 의하여 지도될 때 역사의 힘있는 창조자로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보적 사상이라고 하여 사회역사발전에서 노는 역할이 다같은 것은 아닙니다. 인민대중의 지향과 이익을 어떻게 대변하며 투쟁의 길을 얼마나 정확히 밝혀주는가에 따라 그 역할은 서로 다릅니다. 노동계급이 출현하기 전에도 사상의 선진계급의 지향을 반영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대의 사조들은 그 역사적 및 계급적 제한성으로 하여 사회발전에서 노는 역할도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사상만이 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고 인민들을 혁명투쟁에 불러일으켜 사회역사적 발전을 힘있게 추동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탁월한 수령들에 의하여 창시됩니다.

백수십년의 공산주의운동역사는 노동계급의 수령들이 혁명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켜온 역사이며 그것이 구현되어 세계를 변혁시켜온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맑스와 엥겔스는 맑스주의를 내놓음으로써 투쟁무대에 등장한 노동계급의 역사적 사명과 해방의 앞길을 밝혀주고 자본을 반대하는 투쟁을 추동하였으며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시원을 열어놓았습니다. 레닌은 자본주의가 제국주의 단계에로 넘어간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 맞게 맑스주의를 발전시켜 레닌주의를 내놓음으로써 노동계급과 인민들을 제국주의의 아성을 짓부수고 자유와 해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로 고무하였으며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시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함으로써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켰으며 인류역사발전의 새 시대, 주체시대를 개척하시였습니다.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은 역사발전과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하여 나옵니다.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시였을 때 착취와 억압을 반대하는 노동계급과 인민대중의 투쟁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무대에서는 처음으로 승리한 사회주의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노동계급의 혁명투쟁과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 인민들의 해방투쟁이 급격히 앙양되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인민대중의 혁명적 진출을 가로막으며 저들이 겪고 있던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인민들에 대한 약탈과 폭압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혁명과 반혁명 사이의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었으며 오랫동안 자주권을 유린당해온 인민대중이 계급적, 민족적 해방을 위한 투쟁에 떨쳐나섰습니다. 혁명운동이 세계적 범위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새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조건에서 혁명을 전진시키기 위하여서는 매개나라 노동계급이나 인민들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야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역사발전의 특수성과 혁명의 복잡성, 간고성으로 하여 이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조선혁명은 인민대중이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의 앞길을 개척해 나갈 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였습니다.

혁명은 인민대중의 힘을 발동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실현하는 투쟁이며 인민대중이 자기자신을 해방하는 투쟁입니다. 인민대중은 혁명사상으로 무장하고 조직된 정치적 역량으로 단결되어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혁명가의 임무는 혁명의 주인인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하며 투쟁에 불러일으키는 데 있습니다. 혁명역량도 인민대중 속에서 키워내야 하며 혁명투쟁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도 인민대중의 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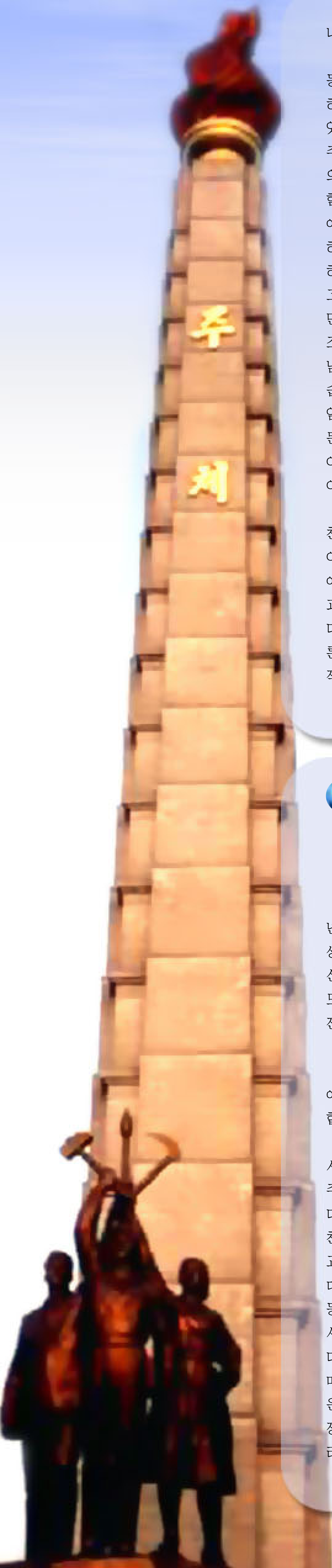
그런데 1920년대에 우리 나라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한다고 하던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화하며 혁명투쟁에 불러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대중과 이탈되어 영도권 싸움과 말공부만 하고 있었으며 대중을 단결시킨 것이 아니라 파벌싸움으로 분열시켰습니다.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이들의 잘못을 꿰뚫어보시고 이들과는 다른 길,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대중에게 의거하며 투쟁하는 참다운 혁명의 길을 걸으시였으며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진리를 밝히시였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출발점의 하나입니다.

매개나라에서 혁명은 주인인 그 나라 인민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하여야 하며 자기나라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자주성과 창조성은 혁명운동, 공산주의운동의 본성적 요구입니다.

주체시대를 개척한 조선혁명은 처음부터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한걸음도 전진할 수 없었습니다. 조선혁명은 강대한 일제를 대상하여 반제민족해방혁명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혁명의 과업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어렵고 복잡한 혁명이었으며 전인미답의 길을 개척해

수령님께서 50여 성상 간고한 조선혁명 의 앞길을 진두에서 헤쳐오신 역사는 위대한 혁명실천 속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사상이론체계로 완성시켜오신 역사입니다.



나가야 하는 간고한 혁명이였습니다.

더욱이 당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 안에는 사대주의가 심하게 나타나 혁명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지난날 나라를 망하게 한 사대주의와 파벌싸움의 악습을 답습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맑스주의자들은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외세에 의존하여 독립을 이룩해 보려고 망상하였습니다. 당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고 하던 사람들은 제각기 당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을 받으러 다녔으며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역사적 조건과 구체적 현실을 떠나서 기성이론과 남의 경험을 기계적으로 모방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대주의와 교조주의가 책임지고 하여야 하며 혁명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였습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의 다른 하나의 출발점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이와 같이 혁명투쟁의 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 사상이론활동을 벌이시였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는 과정을 통하여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을 발전풍부화시키시였습니다. 혁명실천으로부터 출발하여야 기성이론을 자기나라혁명의 이익과 실정에 맞게 적용할 수 있으며 새로운 진리를 탐구하고 새로운 사상과 이론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일찍이 초기 혁명활동시기에 맑스-레닌주의에 정통하시였습니다. 그러나 맑스-레닌주의를 조선혁명의 실천에 적용하는데 머무르지 않으시고 확고한 주체적 입장에서 혁명이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으며 혁명실천이 제기한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고루한 민족주의자들과 행세식 맑스주의자들, 사대주의자들과 교조주의자들을 반대하고 혁명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시는 투쟁과정에 주체사상의 진리를 발견하시였으며 마침내 1930년 6월 카륜에서 진행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간부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노선을 밝히시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주체사상의 창시와 주체의 혁명노선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아직 20대에도 이르시지 못한 젊으신 나이에 민족개량주의, 좌우경기회주의 등 온갖 어지러운 사상들이 판을 치던 혼란 속에서 시대의 지향과 인민의 염원,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꿰뚫어 보시고 주체의 진리를 밝히시어 우리 혁명의 자주적 발전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완성되였습니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어느 한 시점에서 단번에 완성되어 나올 수 없습니다. 혁명의 지도사상은 시대적, 역사적 조건에 기초하고 혁명투쟁경험을 일반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나오게 되며 오랜기간의 투쟁 속에서 진리성이 검증되고 내용이 풍부화됨으로써 전일적인 사상이론체계로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수령님께서는 여러단계의 혁명투쟁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승리에로 영도하시는 과정에 몸소 풍부하고 고귀한 경험을 쌓으시였으며 이를 일반화하시어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였습니다.

수령님께서 50여 성상 간고한 조선혁명의 앞길을 진두에서 헤쳐오신 역사는 위대한 혁명실천 속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독창적인 사상이론체계로 완성시켜오신 역사입니다.

주체사상은 이처럼 인민대중이 역사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시대의 요구와 풍부한 혁명투쟁경험에 기초하여 나온 것으로 하여 우리시대의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되였습니다.

(내일 계속)

정치사전

주체사상에 대하여 (1)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82년 3월 31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70돐기념 전국주체사상토론회에 보내신 론문. 로작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모든 원리와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전일적으로 체계화한 불멸의 총서이다.

로작은 크게 다섯 체계로 되여 있다.

로작의 첫째 체계 ≪주체사상의 창시≫에서는 주체사상의 창시와 그 발전완성의 합법칙적과정을 밝히였다.

문헌의 이 체계에서는 먼저 주체사상창시의 합법칙성을 밝히였다. 로작은 우선 주체사상창시의 사회력사적전제를 밝히였다. 주체사상은 새 시대와 조선혁명의 실천적요구, 우리 나라 혁명투쟁의 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창시되였다.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함에 따라 혁명운동이 세계적범위에서 폭 넓고 다양하게 발전하는 새 시대가 다가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력사적조건은 매개 나라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주인다운 자각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자체의 실정에 맞게 풀어 나갈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력사발전의 특수성과 혁명의 복잡성, 간고성으로 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혁명의 앞길을 개척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하게 제기되였다. 주체사상은 바로 시대와 조선혁명의 이러한 실천적요구를 반영하여 창시되였다. 1920년대에 우리 나라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안에는 파벌과 사대주의가 혁명의 앞길을 가로 막고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파벌싸움과 사대주의, 교조주의후과로부터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고 혁명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인민대중속에 들어 가그들을 교양하고 조직동원하여야 혁명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진리와 혁명은 자기의 신념에 의하여 자기가 책임지고 하며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는 진리를 밝히시였다. 바로 이것이 주체사상의 두가지출발점이다. 주체사상은 이와 같이 우리 나라 혁명투쟁의 실천적경험과 교훈에 기초하여 창시되였다.

로작은 다음으로 주체사상창시의 주체적요인을 밝히시였다. 주체사상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리론활동의 위대한 결실이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적립장에서 혁명리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시였으며 혁명적실천으로부터 출발하시여 혁명투쟁에 제기되는 문제들에 해답을 주시였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성격, 실천적성격으로 일관된 사상리론활동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의 위대한 진리를 발견하시였으며 마침내 1930년 6월 력사적인 카륜회의에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밝히심으로써 주체사상의 창시와 주체의 혁명로선의 탄생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로작의 이 체계에서는 다음으로 주체사상의 발전완성의 합법칙성을 밝히였다. 주체사상은 조선혁명의 실천을 통하여 우리시대 혁명의 지도사상으로 완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여러 단계의 혁명투쟁과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의 사업을 승리에로 령도하시는 과정에 몸소 쌓으신 풍부하고 고귀한 경험을 일반화하시여 주체사상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키시였으며 그것을 독창적이고 전일적인 사상리론 체계로 완성하시였다.

(계속)

2권 제4장

무장한 인민

1. 수난당한 대지
2. 9.18사변
3. 무장에는 무장으로
4. 혈전의 준비
5. 새 무장력의 탄생

1. 수난당한 대지 (1)

5.30 폭동과 8.1 폭동을 계기로 시작된 백색테로의 회오리바람은 1931년에 들어서면서 더심하게 만주대지를 휩쓸었다. 적들은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자들이 여러해동안 품을 들여 키워온 혁명력량을 뿌리채 뽑아던지려고 도처에서 피비린내나는 폭압소동을 벌이었다.

동만에 나와보니 남만이나 중부만주일대보다 공기가 더 괭괭했다. 폭동의 후과도 더 참혹하고 파괴적이였다. 돈화남문에서 장대기에 걸려있는 폭동자의 머리를 보고 나는 혁명세력에 대한 적의 공세가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짐작하였다.

교조주의와 소부르죠아영웅주의에 인이 박힌 종파사대주의자들은 5.30폭동과 8.1폭동을 치른후에도 국치일, 10월혁명기념일, 광주폭동기념일을 비롯한 여러 기념일들을 계기로 기념폭동, 수확폭동, 공포폭동의 명목밑에 련속적인 폭동을 일으켰는데 그 회수는 실로 수백회에 달하였다. 적들의 테로선풍이 해를 넘기면서 계속된 것은 그 때문이였다.

그 과정에 간도의 혁명조직들은 거의다 파괴되었다. 전렬에서 싸우던 핵심들은 말할 것도 없고 폭동대렬을 따라다니며 밥을 날라주던 사람들까지도 모조리 잡혀가거나 처형되었다. 한해전에 우리가 두만강연안으로 나가면서 복구해놓았던 조직들도 적지 않은 손실을 당하였다.

폭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 일부는 적들에게 자수하거나 혁명조직에서 떨어져 나갔다.

지하로 들어간 조직선을 찾으려고 마을에 가면 슬금슬금 눈치만 살피면서 곁을 주지 않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간도는 공산당 때문에 녹았다.≫, ≪공산당의 망동때문에 온 간도천지가 피바다, 불바다로 되었다.≫, ≪공산당장단에 춤을 추다가는 일가멸족한다.≫고 하면서 공산주의자의 간판을 가진 사람이면 소속과 계렬에 관계없이 덮어놓고 외면하거나 경원시하였다.

내가 명월구에 갔을 때 옹구당위원회 위원 리청산은 폭동 후 자기가 겪어온 고충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이런 하소연을 하였다.

≪상급에서는 자꾸 군중속에 들어가 조직을 복구확대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볼 재미도 없고 용기도 나지 않소. 나를 혁명가라고 존대하던 사람들도 그렇고 지난날 내 보증으로 조직에 흡수된 사람들까지도 몇달째 나만보면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고 있으니 이거야 어디 서러워서 혁명을 하겠소. 폭동바람이 몇번 불어대더니 간도의 민심이 아주 고약해졌단 말이요. 이렇게 랭대를 받으면서 살아갈바엔 차라리 혁명을 그만두고 어디가서 밥벌이나 하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불쑥불쑥 일어날 때도 있소. 그러나 말이 쉽지 혁명가가 피를 물고 품었던 초지를 어떻게 그처럼 헐하게야 내던지겠소. 아무튼 무슨 방책이 있어야겠는데 나로서는 궁리가 제대로 떠오르지 않으니 소란스러운 시국만 원망할 뿐이요.≫이것은 리청산의 고충인 동시에 나의 고충이기도 하였다. 간도의 모든 혁명가들이 1930년과 1931년 당시에는 이런 고충을 겪었다. 오죽이나 사태가 험악하고 암담했으면 리청산과 같이 성실하고 과묵한 로혁명가가 이런 고백을 했겠는가.

물론 리청산은 혁명을 중도반단하지 않았다.

나는 그후 안도에 가서 리청산을 다시 만났다. 내가 두만강연안의 여러 현들을 돌아다니는 사이 그는 안도구다에 조동되었다고 하였다. 옹성라자에 있을 때보다는 신수가 별로 멀끔해보였다.

리청산은 새 부임지에서의 일이 잘되어간다고 하면서 몹시 만족해하였다.

≪악몽같은 시절은 지나갔소.≫

그는 이 한마디 말로 자기의 생활에서 일어나 변화를 간단히 표현하였다. 사람들이 속을 잘 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던 때의 그 비참하고 침울한 표정은 그의 얼굴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옹성라자에서 리청산을 만날 때까지만해도 만주지방의 혁명가들은 백색테로의 쓴맛을 보면서 인민들이 곁을 주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다.

나도 역시 그런 고민을 안고 모대기였다. 내가 희멀건 강낭죽에 갓김치를 먹으면서 밤이면 찬바람이 스며드는 남의 집 웃방에 목침을 베고 드러누워 시장기와 싸우던 때가 바로 이 시기였다. 그 당시 우리를 가장 괴롭히던 고통중의 하나가 다름 아닌 시장기였다. 실로 우리는 그때 간도에 나가서 추운 고생, 배고픈 고생을 많이 하였다.

나는 솜옷도 없이 양복차림으로 겨울을 나군 하였기때문에 남들보다 늘 춥게 지냈다. 덮을 것이 없는 집에 갔을 때에는 밤에 양복을 벗지 않고 그대로 누워 잠을 청하군 하였다. 리청산의 집에 가니 그 집에도 이불과 베개가 없었다. 그래서 양복차림으로 하루밤을 잤는데 너무 추워 잠을 자지 못하였다.

어떻게나 혼났던지 후날 안도에 가서도 그날밤에 겪은 이야기를 하였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며칠사이에 달구지군들이 입고다니는 저고리같은 솜저고리를 하나 큼직하게 지어주었다. 나는 그 솜저고리를 입고 다니다가 이불이 없는 집에서 잠을 잘 때마다 목침에 손수건을 감아베고 솜저고리를 덮고 새우잠을 자군 하였다.

그러나 그런 고초쯤은 아무것도 아니였다. 그해 봄 나는 간도에 나가서 어느 하루도 발편잠을 자본 적이 없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춥고 배고파서 잠이 잘오지 않는데다가 학살당한 동지들에 대한 생각과 파괴된 조직들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다.

인민들의 랭대를 받는데서 오는 절망과 고독감이 또한 나를 괴롭혔다. 곁을 주지 않는 군중을 보고 돌아와 찬방에 팔베개를 하고 누우면 사람들의 불신을 당하던 풍경이 떠올라 잠을 이룰수가 없었다.

사실 우리는 오래전부터 간도지방에 큰 기대를 걸어왔었다. 연길에는 종파가 많이 들어갔지만 그밖의 간도지방들에는 종파의 물이 그닥 심하지 않았다. 그것은 이지방들에서 새세대의 공산주의자들이 빠른 속도로 자라나 새로운 방식으로 혁명을 전개해나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었다. 우리 동무들은 여러해동안 꾸준한 노력과 고심으로 이 일대에서 항일혁명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승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해왔다.

그런데 두차례의 폭동바람에 모처럼 쌓아올린 공든탑이 크게 손상되었다. 좌경은 초혁명적인 언사와 구호로 대중을 일시적으로 현혹시켰지만 그 해독성은 이처럼 유해롭고 파괴적인 것이였다. 좌경을 뒤집어놓은 우경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무리한 규정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우리가 만사를 제껴놓고 그토록 총총히 간도로 나온 것은 바로 이 좌경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메꾸고 무장투쟁에로 한시바삐 이행하기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다그치자는데 있었다.

큰 기대를 걸고 찾아온 간도의 파괴상이 이처럼 예상외로 참혹한데다가 인민이 또한 혁명가들을 불신하고 멀리하는 사태까지 목격하게 되니 괴로와서 견딜수 없었다.

인민을 위해 싸우는 투사들이 자기를 낳아준 인민에게서 버림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는가. 단 하루라도 인민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인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 혁명가의 생명은 산 목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대중이 계렬을 가리지 않고 혁명가 일반을 랭대할 때 우리가 그토록 가슴 아프게 생각한 것은 폭동을 계기로 하여 공산주의자들의권위가 훼손된 데 대한 안타까움, 군중이 자기 지도자들을 믿지 않고 조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데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였으며 조중인민들사이에 불신과 오해의 벽이 생긴데 대한 안타까움이였다.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가장 큰 고민거리였다.

하지만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와하고 모대기기만 한 것은 아니였다. 혁명가는 투쟁항로에 난관이 없다면 그것은 사실상 혁명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혁명가는 이런때일수록 의지를 가다듬고 신심에 넘쳐 완강하게 시련을 타개해 나가야 한다.

우리는 1931년에도 간도일대에서 5.30폭동의 후과를 청산하기 위한 작업을 근기있게 해나갔다. 카륜회의 방침을 관철하는데서 첫째가는 장애가 바로 이 폭동의 후유증이였다. 이 장애를 시급히 제거하고 혁명대오를 재정비하지 않는다면 위기에 처한 혁명을 건질 수도 없었고 심화 발전시킬수도 없었다.

오가자회의를 끝낸후 동만으로 나가면서 나는 내자신과 동지들 앞에 두가지 과제를 내세웠다.

하나의 과제는 5.30폭동의 후과를 총화하는 것이였다. 폭동을 설계하고 지휘한 당사자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 폭동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과학적으로 정확히 분석총화할 필요를 느끼였다.

폭동은 실패에 실패를 거듭했지만 동만에는 아직도 광신적인 테로주의자들과 리립삼로선의 신봉자들이 남아 무모한 폭력투쟁에로 대중을 부추기고 있었다.

5.30폭동을 총화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몽상에서 깨여날 수 있었다.

우리는 5.30폭동총화를 통하여 종파사대주의자들의 출세주의와 공명주의, 소부르죠아적 영웅주의에 경종을 울리기로 결심하였다.

폭동의 총화는 또한 만주지방의 혁명가들에게 과학

안도

적인 전략전술과 대중령도방법을 체득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력사적인 전환점으로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다른 하나의 과제는 광범한 군중을 하나의 정치적력량으로 묶어 세울 수 있는 올바른 조직로선을 제기하고 그 로선으로 새세대 공산주의자들을 무장시키는 것이었다.

간도지방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파괴된 조직들을 복구정비하고 그것을 확대강화해 나가는 데서 지침으로 삼아야할 똑똑한 조직로선이 없었다.

동만지방에서 활동하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대중을 조직화하는 사업에서도 혹심한 좌경적 오유를 범하고 있었다. 그들은 ≪계급혁명론≫을 부르짖으면서 빈고농들과 로동자들만을 조직에 받아들였다. 그밖의 계층에 대해서는 다 혁명과는 인연이 없는 대상으로 보았다 그래서 조직에 들지 못한 사람들은 공산주의란 바로 저런 물건짝이구나, 쌀에 뉘만큼만 홀잠뱅이들만 모여서 쑥덕거리고 나머지는 따돌리는 것이 공산주의로구나 하는 말까지 돌리며 분개하기까지 하였다.

이런 폐쇄적 경향을 타파하고 각계각층의 애국력량을 하나로 묶어 세우자면 고적의 명제나 다른 나라의 경험에만 매달리려는 사대주의, 교조주의적 경향을 극복하고 그 모든 애국력량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포섭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올바른 조직로선을 찾아내고 그것을 한시바삐 관철해야 하였다.

만화 ≪조중인민들은 일제의 기만선전에 속지말라!≫

나는 이러한 과제를 간도로정의 첫단계 사업목표로 정하고 동만으로 가는 걸음을 다그쳤다. 그런데 천만뜻밖에도 고유수에서 대중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고 류봉화, 최득영과 함께장춘쪽으로 나가다가 밀정의 고발로 반동군벌당국에 체포되었다. 그 당시 군벌당국은 우리의 활동을 예리하게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도 일본경찰에 짝지지 않는 예민한 후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무장투쟁준비를 하기 위하여 동만으로 나간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었다.

고유수가 중부 만주지방에서의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주요한 활동기지라는 것을 간파한 군벌당국은 이통현 현공서를 발동시켜 이 마을에 독찰원을 파견하고 우리의 일거일동을 검질기게 감시하였다.

고유수에는 현공서에서 파견된 독찰원과 련계를 가지고 우리의 활동을 은밀히 내탐하던 리출류라는 중국인지주가 있었다.

우리가 고유수를 떠나 장춘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독찰원들에게 밀고한 자가 바로 이 리가 였다. 우리는 다난툰이라는 곳에서 독찰원의 련락을 받고 긴급 출동한 보위 단원들에게 체포되어 현공서 감방에서 며칠동안 심문을 받다가 장춘으로 호송되어 거기서 20일가량 감옥생활을 하였다. 내 생애에서의 세번째 감옥살이였다.

그때 장춘에는 길림육문중학교의 리광한 교장선생과 하선생이 와있었다 그들은 내가 체포되였다는 소식을 듣고 군벌당국에 찾아가 ≪김성주는 길림감옥에서 무죄로 석방된 사람인데 왜 또 잡아가두는가? 김성주는 우리가 보증한다≫고 하면서 강력한 항의를 들이댔다. 그들의 도움으로나는 다행히 감옥에서 풀려나올수 있었다.

두 은사가 다 공산주의를 리해하는 련공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어려운 대목에서 주저하지 않고 나를 구원해 주었다고 생각한다.

지난날과 다름없이 나를 진심으로 동정하고 보호해주며 우리의 위업을 변함없이 리해해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나는 평생을 두고 지울 수 없는 크나큰 감명을 받았다.

동만에 나와서 우리가 벌려놓은 첫 사업은 조선혁명군 대원들과 혁명조직핵심 성원들을 위한 돈화 강습이었다.

이 강습에서는 무장투쟁준비를 본격적으로 다그치기 위한 과업과 그 실천방도, 기층당조직들에 대한 통일적 지도를 보장하는 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과 분산된 혁명군중을 찍적으로 결속하는 문제들을 취급하였다. 이해12월에 열린 겨울명원구회의의 예비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강습이었다.

이 강습이 있은 다음에는 안도, 연길, 화룡, 왕청, 종성, 온성 일대 혁명조직들의 사업을 지도하였다.

산도와 두만강연안 륙읍 일대의 실태를 충분히 파악한데 기초하여 우리는 1931년 5월 중순 옹성라자에 있는 리청산의 집에서 당 및 공청간부회의를 열었다. 력사에서는 이 회의를 ≪봄명월구회의≫라고도 한다.

옹성라자란 옹기소리나는 바위라는 뜻이다. 일본이 만주를 강점하기전까지는 명월구를 옹성라자라고도 불렀다. 일본사람들이 만주를 먹은 다음 철도역을 내오면서 옹성라자를 명월구라고 표기하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고착되어 후세사람들도 옹성라자를 명월구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금은 명월구가 안도현 소재지로 되었지만 우리가 회의를 하던 당시까지만 해도 그 고장은 연길현에 속해 있었다.

≪봄 명월구회의≫는 당, 공청, 간부들과 조선혁명군 성원들, 지하공작원들이 수십명 참가하였다. 간도지방의 새 세대공산주의자들 중에서 백창현을 비롯하여 한다하는 혁명가들은 이 회의에 다 참가했다고 생각된다.

≪좌경모험주의로선을 배격하고 혁명적 조직로선을 관철하자≫는 이 회의에서 내가 한 연설을 정리한 것이다. 이 연설에서 내가 동만으로 나오면서 세워놓았던 두 가지 과제가 다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계획했던대로 우리는 이 회의에서 5.30폭동의 본질을 심각하게 분석총화하였으며 기본군중을 튼튼히 결속하고 그 주위에 각계각층 반일역량을 굳게 단결시켜 전민족을 하나의 정치적 력량으로 단합시킬데 대한 혁명적 조직로선을 제기하였다.

회의에서는 이런 조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과업으로 지도핵심을 튼튼히 구리고 그들의 자립적 역할을 높일데 대한 문제, 파괴된 대중단체들을 복구정비하고 거기에 각계각층의 군중을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실천투쟁속에서 대중을 단련시킬데 대한 문제, 조중인민들 사이의 공동투쟁과 친선단결을 강화할데 대한 문제가 론의되고 작은 규모의 투쟁으로부터 큰 규모의 투쟁에로, 경제투쟁으로부터 점차 정치투쟁에로 발전시켜나가며 합법적 투쟁과 비합법적 투쟁을 능숙하게 련결시켜 나갈데 대한 전술적 원칙들을 규정하면서 좌경모험주의적 경향을 철저히 극복할데 대한 문제를 특별히 강조하였다.

1931년 5월의 ≪봄명월구 회의≫는 한마디로 말하여 대중전취를 위한 회합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대중을 전취하는데서 제일 큰 장애물이 바로 좌경모험주의로선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용단을 내려 그 로선을 때리었다.

우리가 좌경을 치고 광폭적인 조직로선을 내놓자 회의참가자들은 그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하였다.

그 회의에서 많은 사람들이 연설하였는데 연설들이 다 혁명적이었다. 연설자들은 한결같이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는 것은 시간문제인만큼 준비를 잘했다가 때가 되면 결사전을 벌이자고 부르짖었다. 로숙한 혁명가들이 많이 모인 회합이니 들을 소리도 많고 참고할 것도 많았다.

나는 이 회의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웠다.

(내일 계속)

선전화 ≪구렝이≫

송시

달라진 세상

그 누구를 만나도 장군님에 대한 이야기
그 어데를 가보아도 장군님에 대한 노래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6월의 그날부터 온 남녘이
장군님 세상입니다

*** 역사의 그날에
이남의 온 가정 TV에 오시어
질곡과 비탄의 빙산에
태양의 열풍을 안겨주신 장군님
언제나 환하게 웃으시며
세상천하 굽어살피시는 모습
통일조국을 안으시는 민족의 태양으로
이 땅에도 빛났습니다

가장 가깝고 따뜻하고 친근하신 어버이로
사랑과 믿음의 화신으로
모두의 심장속에 찾아오신 민족의 영수
천리혜안의 예지와 신비의 실력으로
한순간에 세계의 이목을 다 끌어 모으신
탁월한 천재 영명한 우리 영수

정녕 통이 큰 도량에 비범하신 그 인품
강산을 울리는 우렁한 그 음성은
백두산의 눈바람
항일전의 총포성속에 탄생하시고 성장하신
이 세상 오직 한분 빨치산의 아들
내 조국의 천출명장

그 위대한 풍모의 헤일이
반세기 모여 쌓아 놓은
분단제방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삽시에 북 열풀에 휩싸인 이남도
김정일예찬론을 시대의 사조로
새 세기의 문을 밝게 열었습니다

경향천지 그 어디서나 장군님 명저
장군님 소개책이 최고 인기
장군님 영상모신 상품이 제일 애용품
장군님 지지사이트와 붉은 색 광고판
화면과 지면마다 빛나는 장군님 영상
전화신호음도 장군님 노래

아이들도 어른들도 경사체 글쓰기에
친절한 인사법
인민복의 잠바, 검은색안경,
주석님초상휘장이 유행입니다
단번에 술잔내기 통일원샷에
평양냉면, 평양온면 인기급증이고

생각도 마음도 생활방식도
모두 바뀌어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반하고 매혹되어 장군님을 닮아가니
오늘날의 추세, 이남의 취향
장군님의 숭배심이
온 남녘의 민심, 경향의 관심

아- 손에 손잡고서
6월의 평양연도에 울려퍼졌던
이북동포들의 외침에 이남도 합치어
온 세상을 향해 소리높이 외칩니다
김정일장군님 만세!
만세! 만세! 만만세!

흠모

나무조각 ≪사자를 다루는 용감한 사람≫

나무조각 ≪사자를 다루는 용감한 사람≫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서기장 고빈드 나라인 스리바스타바와 그의 가족이 올린 선물이다.

사자를 다루는 인물을 둘레새김으로 형상한 선물을 오래도록 살펴보면서 사람들은 그 높은 사상예술성에 감탄을 금치 못해한다. 사자의 엄청나게 큰 몸집과 그에 비하여 매우 작은 몸집의 인물, 생김새는 사나우나 순하게 쪼그리고 앉아 앞발을 들고 아가리를 벌린 채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자, 옷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발돋움하여 사자의 아가리에 여유작작하게 손을 밀어넣는 사람… 이 희한한 선물에는 어떤 사연과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고빈드 나라인 스리바스타바는 1983년 6월 우리 나라를 방문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선물을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나무조각 ≪사자를 다루는 용감한 사람≫은 저와 저의 가족이 오랜 인도역사에 기초하여 우리 시대의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의 정당성과 진리성을 예술적으로 형상한 것입니다.≫

인도의 역사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인도에 바하라트라고 하는 매우 용감한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 그는 얼마나 대담무쌍하였던지 그 어떤 사나운 짐승도 겁나하지 않았으며 ≪짐승들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와도 서슴없이 맞서 싸웠고 그것들을 길들였다고 한다. 하여 인도사람들은 바하라트를 용감성의 상징으로 알고 있다. 조각품은 인도역사에 기록된 이러한 인물을 원형으로 하여 창작한 것이다.

그러나 고빈드와 그의 가족이 선물을 마련하게 된 의도는 단지 역사적 인물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려는 데만 있지 않았다. 그는 인도의 저명한 학자로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접하고 그 정당성과 진리성을 깊이 연구 체득하면서 오랫동안 숭상해 오던 선행이론과 결별하고 주체사상신봉자로 인생전환을 한 사람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고전적 노작들을 연구 학습하는 과정에 그는 주체사상이야말로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들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인류를 광명한 미래에로 향도하는 유일하게 과학적인 지도사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노동계급의 혁명사상의 최고봉을 이루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그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를 인류의 영재로, 세기의 위인으로 끝없이 우러러 흠모하게 되었으며 뜻깊은 명절을 비롯한 여러 기회에 그분들에게 축전과 축하편지, 지성 어린 선물들을 삼가 올리었다.

1982년 봄, 그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기회에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오직 주체사상만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따르는 자기와 자기 가족의 굳은 마음을 담은 선물을 마련하여 올리기로 결심하였다.

고빈드는 가족들과 모여 앉아 진지하게 의논하였다.

사색과 탐구, 거듭되는 토론으로 여러 날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고빈드는 주체사상의 불멸의 총서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문헌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다시금 펼쳐들었다. 천만사람 모두가 주옥같은 명제들로 꽉 들어찬 주체사상의 교과서이며 우리 시대의 고전이라고 격찬하는 불후의 저작…

고빈드는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이 주체의 철학사상, 사람만이 세계와 인간자신을 개조하는 유일한 존재라는 이 주체사상의 원리를 선물에 표현하고 싶었다. 그의 뇌리에는 인도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바하라트의 형상이 떠올랐다. 거치른 자연의 한복판에서 사나운 맹수들과 맞서 싸우며 그것들을 길들이는 사람, 동물세계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까지도 한 손에 거머쥐고 사람 앞에 온순히 무릎을 꿇게 만드는 인간, 이것은 주체사상의 본질과 진리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하나의 생동한 형상이 아니겠는가.

가족들 모두가 고빈드의 착상을 적극 지지하였다. 드디어 1년만에 조각품은 훌륭히 제작 완성되었다.

고빈드는 선물을 제작 마련하던 감동의 나날들을 더듬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체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를 모시어 인도인민을 포함한 전 인류가 받아 안은 영광과 행복은 실로 비길 데 없습니다. 저는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 보급하는 활동에서 인도의 바하라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대를 이어 변함없이 주체의 한길로 꿋꿋이 걸어가리라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민족매문지 조선일보의 반북히스테리적 발작

반민족매문지 조선일보의 반북히스테리적 발작이 날이 갈에 따라 더해지고 있다.

얼마전 조선일보는 사설이라는데서 북에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또다시 걸고 들었다.

사설은 북한 주민들의 참담한 인권문제만큼 남북관계에서 화급히 다루어야 할 사안은 없다는니 북한 인권문제는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문제 못지않은 중요한 일이라느니 대북지원 등에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연계시켜야 한다느니 하는 망발을 늘어놓았다.

이에 앞서 어느 한 사설에서는 한반도위기의 본질은 북한정권과 그들이 개발보유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 자체에 있는 것이지 이를 위협으로 느끼는 9.11이후의 미국의 대응방식은 군사상 부차적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것은 조선일보야말로 동족도 모르고 오직 미국에 빌붙어 이북을 압살하는데만 미쳐 날뛰는 극악한 친미사대매국적, 반민족적 매문지라는 걸 다시한번 절감하게 한다.

인권문제를 든다면 인권이 가장 무참히 유린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이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쫓겨난 사실은 이를 입증해 주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극악한 반민족반통일악법에 의해 수많은 애국 학생들과 통일애국인사들이 철창속으로 끌려가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다. 반미자주를 외쳤다고 해서 테러분자로 몰려 끌려가고 생존권과 민주권리를 요구했다고 하여 집단이기주의, 불온분자로 낙인되어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약육강식의 법칙과 패륜패덕, 온갖 사회악이 판을 치는 속에 권세없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버림받고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인권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일보가 제눈앞의 현실은 외면한채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으로 만방에 그 빛을 뿌리는 존엄높은 이북을 걸고 든 것은 흑백을 전도한 파렴치한 궤변이며 이성적, 논리적 사고에서 이탈한 조선일보의 정신병을 다시금 스스로 드러내 놓은 것이다.

하긴 이북에서 세계적인 대걸작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까지 모독해 나섬으로써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적 망신까지 당한 조선일보이고 보면 그의 정신병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정세분석과 사물식별능력, 방향감각상실, 이제는 제 혈육도 분간하지 못하는 조선일보 정신병자집단을 그대로 두면 우리 민중이 이제 또 어떤 수모와 수치를 당할지 누가 알겠는가.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청년학생들은 마땅히 조선일보반대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야 한다. 지난해 조선일보반대투쟁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을 살려 조선일보구독거부, 조선일보입사거부, 조선일보투고거부 등 조선일보반대운동을 보다 심화시켜 강도높게 벌여나가야 한다. 이와 함께 각계 민중과 굳게 연대해서 이 투쟁을 범국민적 투쟁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

노동자, 농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 조선일보가 저지른 반노동자, 반농민적 죄행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노농대중을 조선일보구독거부, 조선일보기자출입금지, 인터뷰금지 등 조선일보반대투쟁에로 이끌어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난 1월 충북 옥천에서 전국의 조선일보바로보기운동가들의 모임인 ≪전국 물총 독립군 결의다지기 대회≫가 진행되어 조선일보반대투쟁의 강도를 더욱 높일 것을 결의한 조건에서 이 투쟁에 적극 지지동참하여 범국민적인 조선일보반대투쟁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이와 함께 조선일보와 공생하는 친미사대매국노, 반통일역적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밀접히 결부하여 벌여나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반민족적 행위로 미칠대로 미쳐버린 조선일보 매문집단과 역적 이회창을 기어이 매장해야 할 것이다.

청년학생들과 함께
주체91, 3월 24일~26일

집안싸움으로 깨질 조짐 보이는 한나라당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한나라당의 내분사태가 날로 심각해져 곧 깨질 조짐을 안고 있습니다.

박근혜부총재가 이회창의 독단, 독선주의를 비난하며 탈당을 선언한데 이어 홍사덕의원이 25일 집단지도체제도입 등이 선행되지 않는데 분격해 탈당을 시사했고 김덕룡의원도 곧 탈당할 의사를 비쳤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부총재 전원이 사퇴하는 등 많은 의원들이 한나라당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회창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바 강삼재의원은 이회창이 집권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또 김원웅의원은 이회창이 경선에 나서면 당내분사태가 더욱더 심각해진다며 경선에 나서지 말 것을 독려했습니다.

한나라당 내분사태가 날로 심각해져 깨질 조짐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이회창의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행위가 가져다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집권욕과 부귀영화에 환장한 이회창은 입만 벌이면 통일을 반대하고 미일 상전들에게 아부아첨하는 망발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회창은 4.8합의서와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될때에도 앞장에 서서 시비하더니 이번에는 또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특사파견에 대해서 악담을 늘어놓았습니다. 미국상전에게 잘보여 어떻게 해서라도 청와대에 입주해보려는 친미사대매국노 이회창은 우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의 ≪핵태세 검토보고서≫까지 찬성하는 반역적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사에는 집권욕을 실현하기 위해 돈을 뿌리고 사람들을 매수한 사례는 적지 않게 기록되어 있지만 이회창과 같이 외세에 추종하여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악한 짓도 거리낌없이 자행한 사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회창이야말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반민족, 반통일, 사대매국노, 역적중의 역적이며 집권을 위해 환장한 정치야심가, 남을 물어뜯기를 좋아하는 사냥개, 공짜를 좋아하는 부정부패자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은 마을에 미친개가 있으면 ****는 것처럼 민족안에 이회창과 같은 인간쓰레기가 있으면 불상사만 생긴다며 그를 즉시 은퇴시켜 백담사로 보내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각계 민중의 이런 목소리는 어느모로 보나 정당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회창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당내분사태를 수습해보려고 발악하고 있지만 어떤 명의도 좋은 처방을 내지 못할 것입니다. 공중분해 될 사태까지 직면한 한나라당을 살리기 위한 유일한 처방은 이회창이 정계에서 즉시 퇴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응어리를 그대로 두면 상처가 아물지 않듯이 이회창을 제거하지 않으면 당내분사태가 더욱 심화되어 결국은 멸망하고야 말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회창과 손잡고 나가는 길이 곧 역사와 민족앞에 대죄를 짓는다는 걸 명심하고 한나라당을 떠나 애국의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화제의 초점 - 주체91, 3월 27일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 91, 3월 27일

김정일영도자님을 칭송
전국연합소속 단체회원

전국연합소속의 모 단체회원인 이성민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을 높이 칭송했습니다.

이씨는 최근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시국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핵공격계획까지 짜놓고 압살하기 위한 비열한 공모를 다 꾸미고 있다. 그러나 북은 강경에는 초강경에로 대응한다는 기성의 배포유한 자세를 그대로 견지하면서 미국에 판판 맞서고 있다. 이것은 친미사대굴종의식에 물젖어 있는 이남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다.≫

그는 계속해서 북이 초강대국임을 자처하는 미국과 맞서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것은 **김정일**장군님께서 일찍이 미국의 대북압살책동이 갈수록 오만하고 횡포해질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시고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펴시어 나라의 군사력을 튼튼히 다져놓았기 때문이라면서 장군님을 모신 민족적 자긍심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통일운동에 적극 나설 결의를 다졌습니다.

비전향장기수 유연철씨에게 생일 90돌상

평양 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 유연철씨에게 생일 90돌상을 보내주셨습니다.

1912년 3월 26일 경북 안동시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난 유연철씨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나라를 광복하시고 이북에 민중이 주인된 새 사회를 세워주신 때부터 고향땅에서 주석님의 자애로운 품을 그리며 적극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는 6.25전쟁후 위대한 주석님의 영도따라 조국통일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 용약 떨쳐나 용감하게 싸우다 체포되어 27년간 옥중생활을 하면서도 혁명적 신념과 지조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사랑의 생일상을 받아안은 유연철씨와 가족들, 비전향장기수들은 오늘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정일**장군님을 21세기의 위대한 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그분의 선군혁명영도따라 조국통일과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에 한몸 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공안당국규탄
범청학련 남측본부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당국이 이 단체 사무국장 등을 연행하고 청년학생들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과 관련해 2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정보원이 지난 22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김혜신씨와 이 단체 후원회 통일청춘 사무국장 김영호씨를 연행하고 2명의 후원회 회원에 대한 수배를 내린 사실을 밝혔습니다.

성명은 정보원의 이런 행위는 청년학생들의 숭고한 통일애국의지를 짓밟는 것이며 6.15공동선언에 위배되는 폭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은 범청학련이 남북해외 청년학생의 3자 연대조직으로 언제나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해왔다면서 그런데도 범청학련을 이적단체로 몰고 있는 것은 공안당국이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반6.15세력, 반공대결세력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공안당국의 탄압은 청년학생들의 들끓는 통일애국의지를 짓밟으려는 행위로써 그들이 노리는 것은 결국 청년학생들의 ≪아리랑≫공연관람사업을 방해하고 6.15민족통일대축전과 같은 공동선언실천운동에 나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며 결국은 공동선언을 전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명은 청년학생들은 결단코 이를 용납하지 않고 범청학련의 합법적 활동을 쟁취할 것이며 6.15공동선언실천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명은 범청학련 관련자석방과 보안법철폐, 통일운동탄압중지와 범청학련 및 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철회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회창의 부정비리는 밝혀져야 한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윤정원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지금 정가에서 이회창이 여러 채의 호화주택을 가지고 자식들과 함께 살고 있는 등 흑막속에 가리워진 그의 경제생활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 각계에서도 이회창의 부정비리와 부정부패의 진상을 밝혀낼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얘기 나눠보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윤정원 : 이회창이 한때 청렴과 정의를 주장하는 이른바 대쪽판사로 행세한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예요. 정계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도 그렇고 최근에 와서도 그는 기회있을 때마다 흐트러진 한국의 기본질서를 바로 잡겠다 그러면서 국민우선정치를 떠들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인기를 올려보기 위한 오그랑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번에 걸쳐 국민의 눈을 속여가며 온갖 부정비리와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돈을 착복을 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회자 : 그럼 먼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가회동 빌라 등과 관련한 이회창의 부정비리행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까요.

윤정원 : 이회창은 지난 97년 대선당시에 성동구 구기동 자택을 판 이후에 가회동 빌라와 잠실의 아파트 등 주거지를 네차례이상 옮기며 살고 있어요. 그가 월세 1천만원의 호화주택에서 47개월동안 공짜로 살고 있는 것은 4억7000만원을 증여받은 것과 같은 건데 그는 단한번도 거액의 전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지난 98년 이후 재산신고를 하면서 자택에 관한 사항은 한번도 밝히지 않았죠. 이건 가진 자들에게 유리하게 만든 허위재산신고에 따른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반되는 거고 증여세포탈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이회창이 후원금의 명목으로 빨아들이는 돈이 지난해에는 2억9500만원이고 지난 99년에는 1억원에도 못미쳐 국회의원 가운데 235위를 기록을 했는데도 무슨 돈으로 호화주택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가회동 빌라 202호의 소유자가 김모씨로 되어 있지만 현재 그곳을 이회창이 쓰고 있는 상황에서 김모씨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신원도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회창의 장남 정연씨가 국제 금융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거액의 해외출장비와 국내사업비가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의혹도 이회창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가에서 이회창이 지난 시기 국세청을 동원해 불법모금한 자금 가운데 검찰에서 징용되지 않은 110억원을 쓰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이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자 : 옳습니다. 이회창이 지금 자기의 호화주택과 관련해서 사돈이 구입해 준거라느니 누구의 것이라느니 하면서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구차한 변명들을 하지만 정치인으로 자처하는 그가 4층, 3층의 2층의 호화빌딩에서 그 일가족들이 살고 있다는 건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고급주택을 쓰고 사는데 드는 엄청난 자금을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그게 다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빨아낸 돈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이회창의 부정비리는 비단 이것만이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윤정원 : 지금 정계에서는 물론이고 국민 각계에서 화제의 초점으로 되고 있는 ≪세풍사건≫을 놓고 봐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건은 국세청이 특정 정당을 위해 선거자금을 받아냄으로써 사회기강을 문란케 한 추악한 사건아닙니까. 1997년 대선당시 국세청장과 차장은 24개 기업에서 무려 166억원을 빨아내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으로 전달했고 이회창은 대선의 직접적 당사자로써 그것을 막후조정하고 자금을 총괄했습니다. 이회창의 사조직인 부국팀이 국세청을 동원해서 대선자금 모금방법을 담은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검사의 중간수사발표가 그것을 입증하고 있죠. 또 이회창자신이 직접 국세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자금모금을 청탁을 했고 대선자금을 낸 기업인들에게 감사전화를 한 사실도 공개됐어요. 지금은 세풍사건의 핵심으로 추격을 받아오던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미국에서 체포됐어도 이씨가 소환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마무리단계에 이른 수사를 중단하고 있지만 이회창이 이 사건의 주역으로 활약했다는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사회자 :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5명이 구속되고 1명의 전 국회의원이 불구속기소되는 등 모두 7명이 재판에 회부됐지만

이회창 후보는 땅투기꾼인가?

대법관이 부동산 투기!

수도권 개발지역… 땅값 급등 10억원대

신항 예정지 건설착공… 150배 투자이익

주택매각선언은 허위에 찬 '가면극'

■ 한나라당 이회창후보 보유 부동산 일람표

97년 국민회의 당보 새정치뉴스 35호

이회창은 이 전차장의 해외도피를 구실로 자기의 개입을 부인하고 있고 이회창 패당도 사전공모는 터무니없는 얘기이며 측근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뻗치고 있습니다. 이회창이 지난 시기 이 사건과 관련해 두차례에 걸쳐 대국민사과성명을 발표한 점을 통해 봐도 그는 절대로 세풍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회창의 부정비리에서 세풍사건과 함께 안기부선거자금횡령사건도 그 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하지 않을까요.

윤정원 : 그렇습니다. 안기부선거자금횡령사건은 지난 95년 총선당시 안기부가 국가예산을 전용하는 방법으로 비자금 900억원을 조성해 그것을 신한국당 총선자금으로 쓰는 그런 부정비리사건이였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의장이였던 이회창은 불법전용한 안기부자금을 183명의 같은 패당들에게 나누어주고 자기는 거액의 자금을 부당취득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도 흑막속에 가려진 상태로 있으니 분격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은 오히려 도둑이 매를 드는 격으로 보복은 보복, 피는 피를 부른다며 도전해 나섰는데 정말 철면피함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죠.

사회자 : 이회창은 바로 그런 자이기 때문에 아들의 병역기피를 위해 병무청관계자들에게 거금을 찔러주고 뻔뻔스럽게도 아들 키가 179센티미터가량 되는데 체중이 43킬로그램도 못나가는 체중미달판정을 받게 했고 법관의 감투를 썼을 때에는 자주, 민주, 통일을 주장한 열혈 청년들과 애국인사들에게 극형과 중형을 마구 선고하면서도 일반 사범들에게는 동전을 넣어야 작동이 되는 공중전화를 아는가고 강박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돈을 빨아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회창후원회와 부국팀 등 사조직들을 발동해서 대선자금을 마련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돈을 끌어들이는데 혈안이 돼 있습니다.

윤정원 : 그리고 보면 이회창이야말로 가장 비열하고 가장 너절한 부정비리의 왕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죽했으면 한나라당의 어느 국회의원까지도 ≪이회창이 걸핏하면 법치주의를 외치지만 그의 뒤가 더 더러워요. 이제 내 입만 터져보죠. 이회창의 부정비리를 쫄딱 발가놓고야 말거라구요.≫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 여러층에 걸친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누리면서 집이 없어 고생하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등의 궤변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속을 우리 민중이 아니죠.

사회자 : 이회창은 자기의 추악하고 비열한 부정비리와 부정부패행위를 가리우기 위해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 민중은 결코 국민을 기만하고 못된 짓만 골라하는 그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각계 민중은 이회창의 부정비리진상을 밝혀내고 그를 정계에서 축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야 할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윤정원 : 감사합니다.

사회자 : 극악한 반통일역적이고 부정부패의 왕초인 이회창과 같은 자가 절대로 대통령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해야 하겠죠. 이회창과 같은 자가 권력을 쥐게 되면 조국통일이 요원해 지는 건 물론 한국사회가 일대 파국에 놓이게 될겁니다. 정치, 경제생활이 지저분하기 이를데 없는 이회창과 같은 추물이 대통령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우리 민중은 이회창과 같은 자에게 절대로 찍지 않을 겁니다. 이회창의 대통령꿈은 오뉴월 개꿈으로 끝날 겁니다.

오늘의 연단 - 구국의 소리
주체91, 3월 24일~26일

이회창의 빌라앞에서 재산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는 1인시위

조선중앙통신

주체 91(2002)년 3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 홍성남총리의 보고

내각의 2001년 사업정형과 2002년 과업에 대하여

김정일장군님께서 참석하시여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5차회의 주석단

대의원동지들!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90돐을 맞는 뜻 깊은 시기에 소집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우리 당의 독창적인 선군정치의 위대성을 힘 있게 과시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내각의 책임성과 역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내각의 지난해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지난해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위력을 온 세상에 높이 떨친 긍지 높은 해였으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새 세기 첫 진군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한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당의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가 철저히 구현됨으로써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공화국의 자주적인 사회주의정치체제가 반석같이 다져 졌으며 나라의 군력이 백방으로 강화되였습니다.

나라의 경제사령부인 내각은 지난해에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 나가자≫라는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당의 혁명적경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려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는 강력한 국가경제력을 다지는데서 커다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당의 경제강국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지난해에 공업생산액은 102프로, 철도화물수송량은 104프로로 장성하였으며 전력, 석탄, 쇠돌, 공작기계를 비롯한 중요공업제품생산이 전해에 비하여 훨씬 늘어 났습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국가투자의 많은 몫을 기간공업부문의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는데 집중함으로써 자립적민족경제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였습니다.

전력공업에 큰 힘을 넣은 결과 발전소들의 정비보수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였으며 내평발전소, 림진강발전소들이 새로 조업하고 성천강계단식발전소, 흥주청년발전소를 비롯한 98개의 중소규모발전소들이 완공되여 발전능력이 훨씬 늘어 났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탐사와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확보탄량을 4년분이상 선행시켜 석탄생산을 전망성 있게 확대해 나갈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무산광산련합기업소와 검덕광산, 룡양광산 등 중요광산들의 채굴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쇠돌과 연, 아연을 비롯한 유색금속과 마그네샤크링카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당의 수송혁명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기관차, 객화차생산 및 수리기지들을 튼튼히 꾸려 놓았으며 립석리 - 삼청광산사이, 이천 - 세포사이 등 여러 구간의 새 철길건설과 철도전기단독선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철도의 수송능력을 일층 강화하였습니다.

당의 과학기술중시방침에 따라 인민경제전반을 현대적기술로 개건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벌림으로써 카바이드생산에 산소 - 전기열법을 받아 들이기 위한 연구사업이 완성되여 비날론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리게 된것을 비롯하여 경제강국건설에 크게 이바지할 가치 있는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거듭되는 크나큰 신임과 배려에 무한히 고무된 라남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원만히 생산보장하여 중요생산공정의 현대화를 실현하였으며 이 과정에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이 맥박치는 라남의 봉화가 창조되였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한대의 콤퓨터로 여러대의 공작기계를 자동조종하는 체계를 완성하고 최신형공작기계들의 계렬생산준비를 갖추어 놓았을뿐아니라 새로운 콤퓨터조립선과 집적회로생산기지를 꾸리고 콤퓨터지역망, 부문망들을 형성하여 나라의 정보산업발전을 위한 밑천을 마련해 놓았으며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중요생산공정들에 대한 기술개건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에 기간공업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축성에서 이룩된 성과들은 전반적공업생산을 더 빨리 추켜 세울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았으며 경제강국건설에 떨쳐 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원대한 대자연개조구상을 높이 받들고 일떠선 인민군군인들과 근로자들은 400여리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의 개천 - 태성호물길공사를 힘 있게 다그쳐 1년반이라는 짧은 기간에 수천만의 토량처리와 수십개소의 물길굴, 수력구조물공사를 기본적으로 끝내고 태양절전으로 통수를 보장할수 있게 하였으며 황해남도 10만여정보의 토지를 사회주의땅답게 규격포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당의 종자혁명방침관철을 위한 투쟁속에서 우리 식의 다수확품종들을 대대적으로 육종하여 받아 들일수 있게 되였으며 알곡 대 알곡을 위주로 하는 두벌농사경험을 비롯한 선진농사경험들이 수많이 창조되였습니다.

인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과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새 세기의 첨단자동화설비들로 장비된 강계닭공장을 비롯한 닭공장들이 여러 도들에 새로 건설되고 평양시안의 닭공장들이 현대적으로 개건되였으며 평양메기공장과 백장어양어장 등 수많은 양어기지들이 꾸려져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보다 유족하게 할수 있는 전망을 열어 놓았습니다.

당의 적극적인 조치에 의하여 현대적인 대동강맥주공장과 대홍단감자가공공장의 분탕, 물엿, 술생산공정이 새로 건설되고 21세기 표본공장인 강계포도술공장과 평성합성가죽공장, 평양화장품공장을 비롯한 경공업생산기지들이 더욱 현대적으로 꾸려 졌습니다.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한 어려운 조건에서 인민을 위하여 마련된 강성대국의 기틀로 되는 본보기적창조물들은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준엄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헤쳐 온 우리 인민들에게 남 부럽지 않은 유족한 생활을 마련해 주려는 우리 당의 숭고한 애민정치만이 낳을수 있는 고귀한 재부로 됩니다.

국토관리사업과 도시경영사업을 전 군중적운동으로 힘 있게 벌린 결과 지난해에 13만여정보의 산림조성과 330키로메터의 새 도로건설이 진행되고 4, 400여키로메터의 강하천들이 보수정리되였으며 건물보수와 원림조성사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도시와 마을을 사회주의맛이 나게 꾸려 나가는데서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습니다.

지난해 사회주의문화건설사업에서도 적지 않은 성과들을 거두었습니다.

백두산지구를 21세기 태양의 성지로 꾸리기 위한 1단계공사가 성과적으로 진행되고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이 특색있게 건립되여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당의 불멸의 혁명력사와 업적을 더욱 빛내일수 있게 되였습니다.

우리 당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콤퓨터수재양성기지들이 훌륭히 꾸려 지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전반적인 교육체계가 더욱 완비되였으며 기초교육과 기초기술교육이 강화되여 교육의 질적수준이 훨씬 개선되였습니다.

지난해 선군시대를 반영하는 혁명적인 문학예술작품이 많이 창작되여 조국의 문화적재부를 풍부히 하였으며 현대적인 고려의학종합병원을 비롯한 의료봉사기지들이 새로 건설되고 제약 및 의료기구 생산기지들이 정비보강되여 우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더 잘 복무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당의 체육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 있게 벌어 진 결과 제13차 아시아녀자축구선수권대회를 비롯한 중요국제경기들에서 우리 조국의 영예를 남김없이 떨치였으며 대중체육활동을 힘있게 벌려 온 나라 인민이 로동과 국방에 적극 이바지하게 되였습니다.

21세기 첫해인 지난해에 우리 인민이 부닥치는 시련과 난관을 뚫고 이룩한 부강조국의 미래를 확고히 담보해 주는 귀중한 성과들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생전의 위업을 충성으로 받들어 나가는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결실입니다.

위대한 선군의 기치아래 사회주의붉은기진군을 다그쳐 21세기의 서막을 장엄하게 열어 놓은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은 영광찬란한 주체혁명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 질것입니다.

대의원동지들!

올해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력사와 업적을 끝없이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전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여야 할 뜻 깊은 해입니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돐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우리 수령, 우리 사상, 우리 군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국가활동과 경제건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당의 웅대한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전

면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우리 수령제일주의를 구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우러러 모시고 수령님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관철하며 높은 실적으로 당을 받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혁명의 천하지대본으로 튼튼히 틀어 쥐고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대를 확고히 세워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우리의 로선, 우리의 원칙을 견결히 고수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것을 적극 내세우고 우리의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당의 총대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 필요한 물질적보장사업을 책임적으로 해나가며 혁명적군인정신과 투쟁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고 전 사회적인 원군기풍을 확고히 세워야 합니다.

내각은 우리 제도제일주의구호를 높이 들고 나라의 경제건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작전하고 조직하며 끝까지 강하게 밀고 나갈것입니다.

올해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자립경제의 현실적요구와 전망에 맞게 나라의 경제토대를 정비하고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양시키면서 전반적인민경제의 기술개건과 현대화를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해나가는것입니다.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자면 무엇보다도 채취공업과 전력공업, 금속공업, 철도운수를 추켜 세워야 합니다.

광업부문에서는 검덕, 혜산지구의 광산들과 제련소, 마그네샤크링카공장들에 력량을 집중하여 연, 아연, 동을 비롯한 유색금속과 마그네샤크링카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는 한편 성천광산, 11월8일광산, 2월광산을 비롯한 중요광산들을 개건확장하여 그 운영을 정상화하며 전도유망한 대상지들에 대한 탐사사업을 강화하여 새로운 광산후보지들을 더 많이 찾아 내고 희유금속과 비금속광물자원을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힘 있게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전력과 석탄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는것은 새로운 활성화의 길에 들어 선 우리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와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발전소들의 개건보수를 다그치면서 발전설비들을 만가동시켜 전력생산을 지난해에 비하여 1. 2배로 늘이며 어랑천발전소를 비롯한 대규모수력발전소와 중소규모발전소건설을 계속 힘 있게 내밀어 발전능력을 새로 더 조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력생산에서 새 기술을 적극 받아 들여 기술경제적지표들을 갱신하는것과 함께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고 전국의 전력계통지휘에 대한 콤퓨터화를 완전히 실현하며 전력생산과 공급, 소비에 대한 감독통제사업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석탄공업부문에서는 굴진과 갱건설에 힘을 넣어 채탄장수를 늘이고 새로운 채탄방법을 적극 받아 들이며 운탄문제를 풀어 지난해보다 석탄생산량을 1. 1배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금속공업부문에서는 무산광산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철광산들에서 설비보수정비와 박토처리를 앞세워 쇠돌생산을 정상화하며 김책제철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제철, 제강소들에서 해탄로와 소결로 등 야금설비들을 보수정비하여 생산을 빨리 추켜 세워야 하겠습니다.

인민경제의 선행관인 철도는 올해에 국가적인 력량을 집중해야 할 주공전선의 하나입니다.

철도운수부문에서는 기관차, 화차생산과 수리에 힘을 넣으면서 중요간선들의 철길강도를 더욱 높이며 인민생활물자수송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는 원칙에서 수송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어 철도화물수송량을 지난해보다 1. 4배로 장성시켜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객차생산전투를 힘 있게 벌려 당에서 우리 인민들에게 마련해 주는 새로운 현대적인 객차들을 최상의 수준에서 생산보장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당의 령도업적이 깃든 단위들과 은정 깊은 배려를 받은 단위들에 힘을 집중하여 이 부문들에서부터 생산적앙양을 일으키며 기계공업, 화학공업, 건재공업, 림업을 비롯한 중요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에서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추켜 세우는것은 우리 제도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올해의 투쟁에서 틀어 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과업입니다.

농촌경리부문에서는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틀어 쥐고 종자혁명과 감자농사혁명을 계속 힘 있게 밀고 나가며 두벌농사면적을 적극 늘여야 하겠습니다.

이미 이룩된 토지정리의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평양시, 평안남도, 남포시 토지정리사업에 국가적인 힘을 넣으며 다른 도들에서도 자체의 실정에 맞게 토지정리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올해에 평양시와 지방의 현대화된 닭공장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염소와 토끼 등 풀먹는집짐승 마리수를 늘이며 남새, 과일, 공예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겠습니다.

양어를 과학화, 집약화하여 메기를 비롯한 생산성이 높은 민물고기생산을 적극 늘이며 바다물고기잡이와 바다가양식물생산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경공업부문에 계속 커다란 관심을 돌려 인민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여야 합니다.

당의 은정속에 현대적으로 꾸려 진 경공업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리며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 맵시 있고 질 좋은 인민소비품생산을 적극 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민들을 새 세기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살림집에서 살게 하려는 당의 높은 뜻을 받들고 평양시를 주체시대의 기상이 반영된 도시로 개건보수하기 위한 투쟁을 힘 있게 벌리며 도시와 농촌들에서 현대적인 살림집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현대과학과 기술에 토대한 경제강국을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우리는 현존 공업토대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방향에서 중요하고 절실한 부문과 대상들, 적은 자금으로 빨리 은을 낼수 있는 대상들부터 최첨단과학기술에 기초하여 개건현대화하며 공업구조를 개선완비하기 위한 단계별 전망계획을 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과학연구부문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를 늘여 전자공학, 기계공학, 생물공학을 비롯한 최첨단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면서 인민경제의 현대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며 기술행정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선진과학기술을 생산에 제때에 받아 들이고 기술경제적지표들을 끊임없이 갱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당의 의도에 맞게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고 도시와 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기 위한 사업을 근기 있게 밀고 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의 높은 대외적권위는 대외경제사업을 확대발전시키는데 매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지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수출품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제품의 질을 높여 상품수출을 적극 늘여 나가며 로씨야, 중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 국제기구들과의 무역 및 경제협조사업을 개선하고 합영, 합작도 널리 조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사회주의문화건설에 계속 큰 힘을 넣을것입니다.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업적이 깃들어 있는 백두산지구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의 성지로 더 잘 꾸리기 위한 2단계건설을 힘 있게 다그쳐 올해안으로 끝내며 모든 혁명전적지들과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보존관리하여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력사와 령도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의 인재중시방침에 맞게 교육사업에서 수재교육, 기초교육, 기초기술교육을 계속 강화하고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을 부단히 개선함으로써 21세기의 과학발전을 떠메고 나갈 실력 있는 최첨단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키워 내며 당의 보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여 치료예방사업을 강화하고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켜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문학예술을 오늘의 시대적요구와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키며 체육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려 중요 국내, 국제경기들에서 주체조선의 영예와 우리 민족의 슬기를 높이 떨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내각은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계속 개선강화해 나갈것입니다.

우리 당과 국가에서는 지난해에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를 개선강화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을 취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을 우리식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 나가면서 계획, 재정, 로동부문의 사업체계와 방법을 개선하고 기업관리에서 독립채산제를 바로 실시하며 지방의 창의창발성을 높이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의원동지들!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일군들이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과 끝 없는 충성심을 지니고 당의 뜻과 위업을 깨끗한 량심과 의리로 받들며 당정책관철에서 결사옹위,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 일군들은 선군혁명로선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 들이며 그 생활력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당은 모든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창조적으로, 우리 식으로 완강하게 풀어 나가는 높은 실력을 지닌 유능한 실천가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군들은 ≪실력으로 당을 받들자≫라는 충성의 구호를 높이 들고 정치실무적자질과 현대과학기술, 능숙한 조직지휘능력을 겸비한 실력가가 되여야 하며 인민군대의 지휘관들처럼 올해 혁명적대진군의 앞장에서 전진의 돌파구를 열어 나가는 투쟁의 기수, 패기 있는 실천가가 되여야 합니다.

일군들은 우리 당의 종자론을 창조와 변혁의 힘 있는 무기로 틀어 쥐고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 나가야 합니다.

라남의 봉화가 세차게 타번지는 오늘의 현실적조건에 맞게 모든 성, 중앙기관들에서는 맡은 부문 사업에 대하여 당과 국가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사업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전개해 나가며 각급 인민정권기관들에서는 농업과 지방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 지방살림살이를 책임진 호주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21세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제국주의자들과의 치렬한 대결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은 첫날부터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현 집권계층은 어떻게 하나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려고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력사의 흐름을 식별하지 못하는 근시안적인 호전세력들의 무모한 행위이며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책동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 막을수 없습니다.

위대한 당의 세련된 령도가 있고 무적의 강군과 영웅적인민의 일심단결의 위력이 있는 한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으며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당의 선군령도 따라 높은 전투적긴장성을 가지고 민족최대의 경사가 겹친 뜻 깊은 올해를 강성대국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 나아갑시다. (끝)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대단결의 새 전기를 마련

≪특강≫ 역사에 길이 빛날 선군 영장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영도 제33회
학사 리광선생 - **김일성**종합대학 방송강좌 주체91, 3월 27일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조국통일의 대강을 마련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대단결의 새 전기를 마련하신데 대해서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 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하셨습니다.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는 기본고리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있습니다. 외세에 의해서 강요된 민족분열과 그로부터 초래된 북남 사이의 정치군사적 대결을 끝장내고, 서로 화해하고 단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일입니다. 결국 민족의 단합은 통일의 운명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민족의 화해와 단합은 그 어느때 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생사운명과 관련되는 가장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였습니다.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미제를 비롯한 외부 세력들은 지난 6년간 북남사이의 대결을 부추기면서 제 잇속을 챙기려고 꾀했습니다. 더욱이 역대 반동통치배들의 사대매국 행위로 민족자주성이 심히 유린되여 온 남조선에서는 국제화, 세계화 소동으로 해서 민족이 이질화될 위험이 더욱 커 갔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때에 김영삼괴뢰역도는 비상경계령을 내리는가 하면 가소롭게도 북의 조기붕괴설을 떠들어대면서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갔고 민족의 단합에 역행하는 그런 못된 짓만 했습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험악한 정세에서 북남사이의 불신과 대결이 깊어지면 질수록 우리 민족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은 더해지고 민족의 단합과 통일은 갈수록 요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나라의 안팎에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민족대단결이야말로 통일의 천하지대본이고 운명이라는 그런 확고한 주체적 입장을 지니시고 민족단합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그러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현명하게 이끄셨는가 하는데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대단결의 새 전기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애국애족의 이념이 구현된 민족대단결5대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자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단결하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외세의 지배와 반통일세력을 반대해 투쟁하며 온 겨레가 서로 접촉대화하고 연대연합할데 대한 민족대단결5대방침은 단결의 기초와 이념, 과업과 방도를 비롯한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전면적인 해답을 주고있는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헌장입니다. 오늘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더 이상 민족의 운명이 외세에 의해 농락 당해서는 안된다는 자각을 가지고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따라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 있는 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민족대단결5대방침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대단결의 새 전기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다음으로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고 온 민족의 통일기운을 더욱 높이도록 현명하게 이끄셨습니다.

조국통일은 통일세력과 반통일세력간의 투쟁인 것만큼 그 위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세력의 결정적 우세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자면 통일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리는 문제가 해결되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북과 남, 해외의 광범한 통일애국역량을 묶어세워 통일운동을 하나의 조직적 기반위에서 전민족적 운동으로 강화발전 시켜나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영도밑에 1994년부터 1999년 사이에 진행된 범민족대회와 해내외 청년학생들의 통일대축전은 겨레의 통일의지와 열망을 내외에 널리 시위하고 그 어떤 힘으로써도 통일로 향한 민족의 거세찬 흐름을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주체83(1994)년 제5차 범민족대회로부터 주체88(1999)년 제10차 범민족대회에 이르기까지 8.15통일축전 행사들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보살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특히 역사적인 조국광복 쉰 돐을 계기로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의 통일의지를 모아 거족적인 통일협상인 대민족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주체84(1995)년 8월 판문점에서는 북과 남, 해외의 정당, 단체 대표들과 각계 인사들이 참가한 역사적인 대민족회의가 진행되였습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어버이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에 의한 통일을 민족 공동의 통일방도로 일치하게 확정했습니다. 이것은 민족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 다시 말해서 연방제통일 궤도에 들어서게 한 그런 역사적 사변이였습니다.

당시 내외 분열주의세력의 방해 책동이 집요하게 감행되고 있던 그런 복잡하고 어려운 속에서도 8.15대축전행사들이 성대하게 진행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대단결사상을 밝혀주시고 현명하게 영도해주신 결과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민족대단결의 새 전기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또한, 숭고한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펴시여 각이한 부류의 사람들을 넓은 한품에 안아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셨습니다. 민족대단결은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은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불패의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대단결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통일의 앞길은 낙관적입니다.

어버이 수령님에 의하여 그 시원이 열리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끝없이 이어가시는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는 사상과 이념, 제도와 신앙에 관계없이 온 겨레를 민족대단결의 기치아래 뭉치게 하는 그런 거대한 구심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없이 넓으신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시고 민족적 양심이 있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정견과 신앙, 과거경력에 관계없이 다 한품에 안아 민족대단합의 길, 통일애국의 길에 내세워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을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는 추모대회가 거행되던 바로 그날에 남조선의 세계일보 사장이며 세계평화연합공동의장인 박보희선생을 친히 접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수령님의 서거 한 돐 추모의식에 참가한 문익환목사의 부인 박용길여사를 옆에 대동하시고 연로한 그의 걸음걸이까지 보살펴주시며 한없는 은정을 베푸셨습니다.

또한 장군님께서는 온 겨레의 위로를 다 받으셔도 슬픔을 가실 수 없던 주체83(1994)년의 그 나날에 오히려 해외 동포들의 슬픔을 헤아리시여 위로연을 차려주셨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 수령님의 생존의 유언이라고 하시면서 국상기간에 재미교포 손원태선생의 여든 돐 생일상을 크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동포애의 최고 정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또한,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서도 조국에 온 재미교포 여류기자 문명자선생에게 크나큰 믿음이 담긴 친필서한을 보내주시고 친히 접견도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조선의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과 그 가족일행을 친히 만나주시고 하늘같은 은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처럼 숭고한 인덕정치, 광폭정치에 매혹된 남조선 인민들과 해외 동포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끝없이 흠모하고 높이 우러러 모시면서 저저마다 북행길을 택했습니다. 그리하여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6년 동안에만도 남조선의 정계와 재계의 중요 인물들과 노동운동단체, 농민운동단체, 청년운동단체, 학계의 각계 인사들, 그리고 언론인, 체육인, 예술인을 비롯해서 그야말로 각이한 부류의 사람들이 평양을 찾아와 민족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인덕정치, 광폭정치아래 민족대단결의 길에서 이룩된 결실들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대단결의 새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을 현명하게 영도하신데 대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하여 불면불휴의 활동을 진행하신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6년 기간에 온 민족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이시야말로 곧 조국통일이라는 것을 더욱더 심장 깊이 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의 통일기운은 새 세기에 들어와 더욱 높아가고 있으며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의지와 지향은 꺾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불패의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태양이시고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민족대단결위업을 진두에서 이끄시기에 통일의 앞길은 낙관적입니다.

그럼 이 시간 강의는 이만하겠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민족자주 정치로 조국통일운동을 촉진하신데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F-X 사업 담당자 고발, 정보공개 청구

평가기준 및 결과 조작 의혹 제기

국방부가 차세대전투기(F-X)로 미 보잉사의 F-15전투기를 사실상 확정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등 6개단체는 28일 오전 서울지검에 F-X사업을 담당했던 국방부의 최동진 획득실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참여연대는 27일 조주형 공군대령의 증언을 공개하면서 F-X사업의 1차 평가 조작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28일 국방부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를 상대로 F-X 사업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 국방부 1단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F-15 내정 철회와 F-X사업 연기를 촉구하는 대대적인 사이버 서명운동(www.peoplepower21.org)을 벌이고 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는 우선 F-X사업을 둘러싼 외압의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또 F-X사업에 참여했던 프랑스 다소사도 F-X사업 1차 평가의 공개를 요구해 외교적 마찰도 예상된다.

28일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킨 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등 6개 단체는 고발장을 통해 ≪차세대전투기 시험평가단의 부단장이었던 조주형 공군대령의 증언에 따르면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이 무기도입을 총괄지휘하는 위치에 있는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무려 5조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되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이 완전히 공정성을 상실한 채 파행적으로 추진되면서 막대한 혈세의 낭비와 국익 손실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고발장에서 조주형 공군대령의 ≪양심선언≫을 근거로 밝힌 최동진 획득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내용은 △2001년 1월 초 공군 시험평가 실시 현황보고 자리에서 최 실장이 ≪만일 F-15K가 최종기종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미군이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이라면서 조 대령에게 압력을 가한 점, △조 대령이 2001년 4월 국회 보고 준비 과정에서 최동진 획득실장이 F-15K 시험평가 결과 중 일부 부정적인 평가 부분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 등이다.

이들은 또 ≪F-X사업에 대한 명백한 외압 사실에 대해 국방부가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치해 책임자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율곡비리의 전철을 밟게될 것≫이라면서 ≪국방부 감찰단은 모든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28일 국방부와 NSC 사무처에 F-X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막대한 국민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 대상기종을 사실상 결정한 국방부의 1단계 평가결과와 이를 승인한 NSC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납세자로서 알 권리가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강행된 국방부의 평가 결과에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F-X사업의 추진은 최소한의 외압과 비리 의혹이 제거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을 때 다시 추진해야 한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 등을 철저하게 규명해 국가이익과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에서 F-X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F-X 도입사업에 참여했던 프랑스 다소사(라팔기종)도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1차 평가 결과의 공개를 요구했다.

다소사는 보도자료에서 ≪다른경쟁 기종보다 한세대 앞선 기술력, 경쟁기종보다 40%(10억달러 이상) 많은 절충교역, 그리고 경쟁기종보다 8%(3억5천만달러 이상) 저렴한 가격을 제안했다≫면서 ≪이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라팔이 1단계 평가에서 최우수 기종으로 선정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다소사는 또 ≪국방부가 발표한대로 1단계 평가결과가 오차 범위인 3% 이내라면 저희로서는 1단계에서 고려된 요소 이외의 어떤 다른 요인이 정책 결정에 개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뒤 평가 결과의 공개를 촉구했다.

공희정기자
오마이뉴스 2002/03/38

F-15K선정으로 한국내 반미감점 고조

미국 워싱턴 포스트지는 28일 한국정부가 차세대 전투기사업 기종으로 미국 보잉사의 F-15K를 사실상 선정함에 따라 한국내 반미감정이 크게 고조됐다고 보도했다.

포스트는 1단계 평가에서 보잉의 F-15K와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 사실상 같은 점수를 얻었지만 2단계 평가에서는 정치적 고려에 따라 기종이 결정되기 때문에 F-15K로 확정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F-15K가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사실상 내정됨으로써 한국의 주요 군사적 후원자로 남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부각시켰다고 지적했다. 포스트는 또 한국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기종 선정과정을 둘러싼 그간의 치열한 경쟁과정을 소개하면서 수주경쟁이 ≪정치조작과 가격담합, 뇌물 의혹,한국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했다는 불평 등으로 인해 수렁에 빠졌다≫면서 일부 분석가들의 말을 인용, 이같은 논쟁이 최근 수년래 한국내 반미감정을 최고조로 고조시켰다고 전했다.

포스트는 이어 한국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F-15K가 사실상 내정된 후 인터넷 웹사이트에는 보잉사를 반대하는 글들이 폭주하고 있으며 김대중대통령의 목소리를 흉내낸 컴퓨터 녹화음성이 낡은 ≪자전거기술≫을 팔려한다는 이유로 부시 대통령을 욕하는 내용의 이메일이 한국의 인터넷상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확산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도선특파원
연합뉴스 2002/03/28

민주당 ≪새벽21≫, 차기전투기사업 자주적으로

국방부의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일명 ≪F-X사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F-X사업에 대한 투명한 결정을 촉구해 주목된다.

이들은 특히 ≪특정기종을 비호하는 세력의 압력에 의해 기종결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뒤 ≪기종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호, 김태홍,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개혁그룹인 새벽21 소속 의원 12명은 27일 여의도 모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차기 전투기 사업은 4조259억원이 소요되는 국가적 이익이 달려있는 사업≫이라면서 ≪F-X 사업 기종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일방적 패권주의 성향을 보여 온 미 조지부시 공화당 정부 및 특정군수산업체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의 압력에 의해 국가의 자주적 무기획득 의사결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많은 국민들은 국방부가 특정국가의 특정기종 선정을 위해 전문 평가단에 의한 1단계 정량적 평가에서 3% 이상의 평가차이로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경제적 고려에 의해 특정기종을 불공정하게 선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는 기종결정 과정이 공정, 투명하게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오마이뉴스 2002/03/27

문화 · 예술계 인사도 발전소 매각 반대 선언

노조원 탄압중지 요구도...사회단체와 연대 지속적으로 활동하기로

시민 사회단체와 각계인사들이 정부의 ≪발전소 매각 방침≫을 반대 하는 성명서와 공동선언을 연이어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문화 · 예술인들도 ≪발전소 매각반대≫에 나섰다.

화가 김용태(민예총부이사장) · 가수 정태춘 · 만화가 주완수(우리만화연대회장) · 화가 임옥상 · 영화감독 정지영 등 문화 · 예술인들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발전소 매각 정책을 유보할 것과 발전 노조원들에게 가하는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발전소매각 및 민영화 전면유보≫를 위한 문화예술인 105인 서명을 발표하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경제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민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힘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부의 강경책은 객관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명운동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105인 서명의 취지를 밝혔다.

주완수씨는 ≪대통령은 적자가 계속 되고 있다고 말하고, 한전에서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냈다고 발표하는 이율배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기업이 만성적자이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는 공기업 적자의 책임을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옥상씨는 ≪공공재의 공적가치는 국민생활의 안정성 확보가 큰 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수익성 추구라는 경제논리로 국민생활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면 공공재의 공적가치는 제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부담 운운하기 전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탕진한 공적자금을 회수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에 △노동자들에 고소 고발 복귀협박 전원해고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재산가압류를 취소할 것△노동운동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서민과 국민경제의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발전산업에 대한 해외 매각을 전제로 한 민영화를 전면유보하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 아래 전력산업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문화 예술인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노동계와 함께 ≪발전소 매각≫반대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정부가 강경대응을 멈추지 않을 경우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소속 9만여명의 교사들이 다음달 2일부터 민주노총의 종파업에 동참하는 뜻에서 집단적인 조퇴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는 28일 ≪정부와 전력산업 사장단이 대화거부와 강경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면서 ≪내달 2일로 예정된 종파업에 적극 참여 할 방침이며 학교현장에서 교사로서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방안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에따라 우선 다음달 2일부터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산하 일선 학교의 9만여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오전 수업을 마친 뒤 오후에 조퇴해 각종 집회 등에 참가하는 조퇴투쟁을 전개하기로 했다.

각계각층의 발전소매각 반대발표 경과

7일 홍근수목사등 각계각층 988인 선언
8일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시국선언
16일 박형규목사 이돈명변호사 등 사회원로 기자회견
19일 서울대 경제 · 경영학 전공교수 102인 선언
20일 사회학 전공 교수 43명 시국선언
21일 교육의료 13개 단체 선언
27일 환경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여성연합 민주노총 공동성명 발표

김윤희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28

장애해방운동가 최옥란씨의 삶과 죽음

≪절름발이 사회≫가 그를 죽였다, 울림없는 메아리에 절망 … 노제도 막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며 자살이란 극한 방식으로 저항했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37 · 여)씨의 노제가 28일 경찰의 제지로 무산됐다.

최씨가 생전에 못다한 말들을 이 사회에 전하기 위해 계획한 노제가 무산됨으로써 최씨의 외침은 살아남은 자들의 몫으로 남았다.

최씨는 1989년에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 제정과 장애인 복지법 개정을 위한 공대위≫ 활동 을 시작으로 서른 일곱 길지 않았던 생애를 장애자 권익을 위해 바쳤다. (노동일보 3월28일 자 12면 참조)

평범한 장애인이었던 최씨는 지난 87년 가을 뇌성마비 장애인모임에 가입하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 스스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고, 동료들과 함께 뇌성마비장애인연합 인 ≪바롬≫ 설립의 주역으로 나서기도 했다.

특히 최씨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급여의 비현실성을 폭로하며 지난해 12 월 명동성당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그토록 당당했던 최씨도 울림없는 메아리에 절망,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이 못다한 일 들을 살아남은 자들에게 넘겨주고 저 세상으로 떠났다.

◇잘못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든 죽음=≪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가 워낙 낮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 니다. 의료비도 비급여가 많아 저같은 중증장애인도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약값도 안 되는 생계비로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최씨는 지난해 12월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에 들어가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허울에 대해 이렇게 항의했다.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좌판을 벌이며 장사했던 최씨는 목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노점을 접어야 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 따르면 1인당 월 소득이 33만원이 넘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최씨에게 지급한 돈은 생계급여(26만원)와 장애인수당(4만5000원)을 합쳐 30만5000원에 불과했다.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비(16만원), 치료비 및 약품 구입비(25만3000원), 식비 등 최씨의 한 달 생활비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빚을 져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로인해 최씨는 생전에 ≪현재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개인별, 가구별 특수성을 무시하고 행정편의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졌다≫며 ≪가구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산정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항의했었다.

최씨는 이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월 생계급여 26만원 을 국무총리에게 되돌려주기도 했다. 또 ≪현행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그리고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했었다.

민중복지연대 한 진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 로 인해 생계급여 이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장애인들은 빈곤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으며 병이 들어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중복지연대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국가기초생활보장법제도 독소조항 폐 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을 추진하고 있어 최씨를 죽음으로 몰아간 이 법의 개정을 움직임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진기자
노동일보 2002/03/28

한미냉전세력, 또 딴지 거나

금강산 관광사업 대금 군사비 전용 논란을 보며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꽁꽁 얼어붙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타개하고자 하는 임동원 특사의 북한 방문이 다가오고 있다. 2003년 한반도 위기설이 나올 정도로 상황이 여유치 않은 상태에서 남북한간에 여러 가지 현안을 푸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 특사의 방북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러나 임 특사의 방북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뜻밖의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에서 남북한이 임 특사의 방북을 동시 발표한 직후인 25일, ≪미 중앙정보국(CIA)과 주한 미군사령부는 북한이 지난 98년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의 대가로 받은 현금 4억 달러를 군사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3월 5일에 작성된 보고서가 우연의 일치인지 임 특사의 방북 발표 다음날인 25일 발표된 것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다.

미 의회조사국이 이러한 내용을 공개하자,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보수야당과 조선, 동아 등 보수언론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임 특사의 방북을 ≪이 정권의 마지막 대북 깜짝쇼≫라고 규정하면서, 미 의회조사국의 발표 내용을 근거로 ≪이는 국민혈세로 북한의 무력증강을 도와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로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자민련 역시 논평을 내 ≪지난해 1월 미 중앙정보국(CIA)으로부터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도 묵살한 채 금강산관광 사업을 계속 추진한 것은 결국 북한의 전력증강을 의도적으로 도운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에 대한 공세에 합세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7일 사설에서 ≪그렇지 않아도 말 많고 탈 많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만에 하나 북한의 군사력 증강이나 핵과 미사일 개발 비용을 조달하는 데 악용된다면 이 사업은 마땅히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社 說

국민세금으로 北 군사력 증강?

조선일보 3월27일자 사설

동아일보 역시 28일자 사설에서 ≪북측이 실제로 관광대가를 군사비로 전용했는지 여부를 지금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면서도 ≪우리는 정부가 ≪햇볕정책의 옥동자≫라는 명분 하나로 경영난에 직면한 이 사업에 고집스레 매달리고, 최근까지도 비상식적인 지원책을 내놓는 등의 현실 인식을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강산 관광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CIA 등 미국 내 강경파는 북한의 군사비 전용 가능성을 우려(?)해왔다. 이러한 경향은 부시 행정부 들어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에서도 나오듯이 그러한 우려는 이제 ≪믿음≫으로 바꿨다.

이러한 근거 없는 믿음을 국내의 냉전주의 세력은 ≪호재≫로 삼아 임 특사의 방북 결정으로 모처럼 조성되고 있는 남북대화 분위기에 딴지를 걸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햇볕정책은 끝났다≫는 기대감을 가졌는데, 임 특사의 방북 등으로 되살아날 조짐이 보이자, ≪우리가 퍼준 돈이 총알로 되돌아온다≫는 선정적인 반북, 반DJ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공 드라이브가 심상치 않고, 북미간의 갈등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 언론과 야당의 근거없는 강경 여론몰이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 위기를 수습하는 데 힘과 지혜를 모아도 모자를 판에 소모적인 논쟁으로 국력을 소비한다면, 위기는 단순히 기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욱식기자
오마이뉴스 2002/03/28

안티조선운동은 계속된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총회 가져

민언련이 올해 10대 과제로 △언론개혁운동 △안티조선운동 △ 선거보도 감시 연대기구 참여 등을 꼽고 지난해에 이어 언론개혁운동에 더욱 매진해 가기로 했다.

사단법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 이하 민언련)은 3월27일 저녁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총회를 갖고 성유보 현 이사장을 재선임했다.

다음은 민언련이 이번 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 요지이다.

언론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2001년을 돌아보며 여러 가지 감회가 교차함을 숨길 수가 없다. 권력화한 거대언론과 일부야당의원의 물타기 전략으로 ≪언론개혁운동≫이 ≪홍위병시비≫에 심지어 ≪색깔론≫까지 동원된 이전투구식 전투로 비추어지기도 했으나 민언련 18년 역사가운데 언론이 이토록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시기가 있었던가를 먼저 생각해본다.

지난해 세무조사로 촉발된 공간에서 민언련은 언론사세무조사로 촉발된 정국을 언론개혁정국으로 이끌어 정간법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우여곡절 끝에 조선일보반대 시민연대결성을 주도, 4차에 걸친 조선일보 기고 인터뷰 거부 선언을 했고 조선일보 반대 민간법정을 통해 안티조선운동을 시대적 대세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감히 자부한다.

지난해 정간법개정운동과 안티조선운동에 있어 가장 큰 성과는 연대활동의 강화이다. 그 동안 언론유관단체중심으로 협소하게 진행되어온 언론운동이 범시민 사회단체의 연대로 심화확대된 것이다. 특히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단체와 학생들이 언론개혁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실천적 언론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제 언론개혁의 과제가 민언련과 언론운동단체들만의 몫이 아니라 시민사회 및 기층민중 공동의 과제로 떠올랐다.

특별히 올해는 선거의 해다. 어느 시기보다 언론의 공정한 보도가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우리는 올해도 변함없이 편파왜곡보도 감시를 통해 언론이 올바른 보도를 통해 제대로 각후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게 하고 국민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가 결성되는 대로 민언련은 적극적으로 결합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언론개혁운동은 민주화를 확고하게 뿌리 내리게 하는 제2의 민주화운동이다. 방송이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족벌신문들이 언론이 아닌 권력으로 군림하면서 군사독재를 대신하여 이 사회를 지배하는 사회를 누가 민주화된 사회라 할 것인가.

방송이 정권의 방송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는 날, 권력화한 신문이 국민의 신문으로 바뀌는 날 우리사회도 민주주의라는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회가 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평화통일의 길도 활짝 열리게 될 것이다.

김시연기자
오마이뉴스 2002/03/28

4.3 유족회 ≪월간조선≫에 11억 손해배상소송

제주도 4.3사건희생자유족회(회장 이성찬)은 3월 28일 제주지방법원에 ≪월간조선≫을 제주도 4.3 역사왜곡을 이유로 11억1천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2000년 8월 28일 국무총리 산하에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활동하고 있다. 이 특별법에 의하면 제주도 4.3사건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45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

유족회는 ≪≪월간조선≫의 비열한 작태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어느 누구도 정부에 의해 진상규명과정 중인 4.3의 진실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일념으로 4.3역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모아 유족회원 446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임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제출하는 소송이 정의라는 법의 잣대로 진실만을 추구하는 역상의 승리로 이어져 한국현대사를 새롭게 쓰는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4.3유족회 회장 이성찬 외 회원 446명이 주식회사 ≪월간조선≫(대표이사 조갑제, 조갑제, 우종창(취재2팀장)을 상대로 낸 소장에서 ≪≪피고들은 특별법이 제정된 사실과 그 이후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가사 기존 제주4.3사건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월간조선 10월호를 발행하는 시점에서 기존의 평가를 그대로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평가마저 왜곡하여 보도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월간조선≫은 2000년 2월호에서 변호사 이진우가 기고한 글 ≪국군을 배신한 국회≫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의 국회통과를 개탄한다≫ 성신여대 이현희 교수의 ≪제주 4.3의 본질을 다시 말한다≫ ≪소련의 지령 하에 대한민국 건국 저지하기 위한 유혈 폭동≫는 기고문을 게재하여 제주 4.3사건이 소련의 야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2001년 10월호에 ≪여순14연대 좌익 반란사건을 비호하고 국군의 진압을 양민학살로 왜곡한 영화제작에 헬기 · 트럭 등 군 장비지원하다≫ ≪조성대 전 국방부장관 임기중에 이영화제작을 막았다. 절대로 만들어져서는 안될 영화이다≫라는 표제와 ≪여순 14연대 반란 진압을 양민학살로 몰고간 영화 ≪애기섬≫제작에 군 장비가 지원된 과정≫ ≪국군 지휘부가 자해행위≫라는 글을 실었다.

소장에서는 ≪피고들은 쉽게 제주 4.3사건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지 모르나,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고, 과거의 피해를 재차 떠올리게 되는지 모른다≫며 ≪피고들은 악의적으로 제주4.3사건이 진상을 독자들이 오해하게 하여 더욱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박신용철기자
시민의 신문 2002/03/28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 (1)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의 최근논문의 비교연구

차 례

▶서론
▶1. 두 논문의 본질적 특징
▶2. 두 논문의 의의
3. 두 논문의 구성체계
4. 두 논문이 제출한 새로운 견해
1) ≪이론문제≫의 새로운 견해
2) ≪전략적 과업≫의 새로운 견해
5. 두 논문의 견해상 공통점과 차이점
6. 두 논문에 대한 이견
7. 새로운 이론쟁점
결론

서론

조미공동코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은 조국반도의 정세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으며 근본적인 정세변화는 불가피하게 전략전술의 변화를 불러왔다. 주체시대에 조국혁명을 수행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변하지 말아야 하는 전략의 근본문제가 있는 반면 정세변화에 신축적으로 조응하는 전략의 변화, 전술의 변화가 있는 법이다.

시대추이와 정세변화에 암둔하거나 새로운 전략전술의 탐구에서 소극적이라면 미제국주의와 사대매국세력과의 투쟁에서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그간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주체혁명의 새로운 전략전술을 진지하게 탐구한 많은 이론가 중에서도 최성원동지와 한호석소장은 단연 돋보인다. 두 이론가는 주체적인 정세관에 근거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정확한 개념을 구사하며 실천이 요구하는 새로운 이론들을 적극적으로 탐구하여 민족민주대오에 내놓았으며 그 이론들은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이 이론들에 반대하는 일부단위의 비판도 없지 않았으나 그 공감대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필자는 그간 두 이론가의 새로운 견해를 담은 논문들을 분석검토하면서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전국적 관점의 새로운 전략전술≫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오랜 기간의 준비와 실천적 관점이 없이는 내놓을 수 없는 이 공들인 논문들이야말로 우리 운동대오가 당면투쟁을 전개하는데서나 전망목표를 수립하는데서나 깊이 참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은 부족하지만 하나의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주로 연구분석한 논문들은 최성원동지가 대표집필한 ≪두 개 전선, 승리를 향한 일보전진≫(이하 ≪두개전선≫), ≪현시기 전략적 통일전선과 민족해방혁명의 이론문제에 대하여≫(이하 ≪이론문제≫와 통일학연구소 한호석소장의 ≪조미관계 10년을 통해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이하 ≪통일정세≫), ≪민족민주전선이 수행하는 전략적 과업의 성격, 동력, 실현경로≫(이하 ≪전략적 과업≫)이다. 그리고 이 논문들 중에서도 최근에 발표되고 보다 정식화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론문제≫와 ≪전략적 과업≫를 위주로 비교설명하고자 한다.

두 이론가 중에서 최성원동지를 앞서 언급하는 이유는 그 동지의 논문이 한호석소장의 논문보다 앞서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1. 두 논문의 본질적 특징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와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최근의 근본적인 정세변화를 분석하고 주체의 전국적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전술을 적극적으로 탐구한 문제작이다.

다른 논문에서는 볼 수 없는 두 논문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두 논문의 정세인식은 공히 조미공동코

광고

PDF자료집

조미공동 코뮈니케

조미공동코뮈니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 사이의 공동콤뮤니케(2000)
노작
미국 ≪워싱턴타임스≫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한국민족민주전선
미국이 벌이는 북의 ≪미사일위협≫소동의 진상공개장
관련 문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미합중국 공동성명(93)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체계수립에 관한 조선외교부 성명(9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사이의 기본합의문(94)
미국대통령이 보내온 담보서한(94)
조미회담진행기간에는 미싸일발사를 하지 않을것이다(99)
경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특사가 미국대통령을 만났다
조미공동콤뮤니케 발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특사가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만났다
강석주제 1 부상과 미국대통령 및 국무장관 특별보좌관사이의 회담 진행
자주민주통일투쟁위원회
대북적대시정책은 파국을 부를 것이다
미부시정권은 대북적대시정책을 중단하고 북미공동코뮈니케를 성근히 이해하라
논문
조 ・미 관계의 경색국면과 제네바 기본합의서 이행문제
조미관계 10년을 통해 본 한(조선)반도의 통일정세

뮈니케와 6.15공동선언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위대한 선군혁명전략의 승리이고 원대한 통일혁명전략의 일환이며 그 결과 조국반도의 정세는 머지 않아 전국적 범위에서 자주성을 완성할 승리적 국면이라는 것이다.

한호석소장이 민족주체적 정세관이라고 명명한 이러한 정세인식은 최성원동지의 논문에서 ≪전략적 승리≫라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두 논문은 모두 6.15공동선언 이후 급격히 발전하던 정세가 내외 반통일세력의 준동으로 일시적인 곡절을 겪고 있지만 통일혁명의 전도는 양양하며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정세관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둘째, 두 논문은 공히 이러한 근본적 정세변화에 걸맞게 주체의 기성이론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논문은 조미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조미관계를 정상화하여야 한다는 조미공동코뮈니케와 남북의 최고지도자간에 민족자주원칙과 낮은 단계 연방제와 국가연합의 공통성을 확인한 6.15공동선언이 천명된 조건에 맞게 주체의 전략전술도 새롭게 보완되고 정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체의 기성이론이 이러한 정세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던 조건에서 수립된 만큼 주체의 전략전술을 조성된 정세에 맞게 보완정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째, 두 논문은 공히 새로운 전략전술을 전개하는데서 전국적 관점을 견지하는 것을 근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두 논문이 모두 반국적 관점을 배격하고 전국적 관점을 견지할 데 대한 원칙을 일관되게 강조하는 한편 실제로 그러한 전국적 관점에서 새로운 전략전술을 제기하고 있는 점은 매우 돋보인다.

두 논문이 강조한 전국적 관점이 조국혁명 차원에서 정세변화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통일혁명의 승리가 도래하였다고 전망하는 낙관적인 정세인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물론이다.

그것은 네째, 두 논문은 공히 전국적 관점에서 주체의 통일전선이론과 민족해방혁명이론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논문은 이상의 정세관과 전국적 관점에 기초하여 이러한 정세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고 전국적 관점 하에 이론을 전개할 필요가 절박하지 않았던 기성의 통일전선이론과 민족해방혁명이론을 새롭게 보완정립하고 있다.

두 논문은 나아가 전국적 관점의 혁명영도체계론까지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 ≪이론문제≫는 이를 전격적으로 제출하였으며 한호석소장도 그간의 논문들을 분석해보건대 별 이견이 없어 보인다.

두 논문이 새롭게 제출한 전략전술론은 모두 이남활동가들의 당면요구, 정세변화에 맞는 새로운 전략전술론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두 논문의 의의

최성원동지의 ≪이론문제≫와 한호석소장의 ≪전략적 과업≫은 주체 90(2001)년 하반기에 발표되어 이남 운동대오에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화제의 논문으로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우선, 두 논문은 조국의 통일혁명을 중심에 놓고 승리의 낙관적 전망을 밝혀주는 주체적인 정세분석으로 우리 활동가들과 애국민중에게 혁명적 낙관주의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두 논문을 통하여 우리 활동가들과 애국민중은 머지않은 장래에 통일혁명의 승리가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또한 두 논문은 이남 운동대오 내의 고질적 문제점 중의 하나인 반국적 관점을 극복하고 전국적 관점을 확립할 수 있는 정세관과 정치노선, 조직노선, 투쟁노선을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다.

두 논문은 당면정세가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전국적 사상관점을 전략적 전취목표, 통일전선론, 혁명영도체계론, 투쟁전술론 등으로 구체화하며 체계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또한 두 논문은 근본적인 정세변화에 조응하는 새로운 이론을 제출함으로써 주체의 전략전술론을 풍부심화시키고 있다.

두 논문이 기성이론의 핵심을 계승하면서도 정세변화에 맞게 새롭게 발전시킨 통일전선론이나 민족해방론은 모두 주체의 전략전술론을 풍부심화시키는 의의가 있다.

또한 두 논문은 우리 운동대오가 당면정세에서 전개하여야 할 투쟁의 전략과 전술도 새롭게 제출하고 있다.

두 논문은 모두 우리 운동대오가 당면해서 반미자주화투쟁을 주선으로 틀어쥐면서도 반민주반통일세력을 제압하고 그 존립기반인 국가보안법체제를 분쇄하여야 한다는 투쟁의 집중타격지점을 밝히고 있다.

이상의 두 논문에 공통되는 중요한 의의와 함께 ≪이론문제≫는 지역통일전선론과 민족해방혁명론, 혁명영도체계론을, ≪전략적 과업≫은 민족자주완성론과 일반민주주의변혁론, 민족통일기구수립론을 각각 이남 운동대오에 처음으로 제출하면서 서로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정세변화가 제기한 여러 이론문제들을 입체적으로 해명하고 있다.

결국 두 논문의 심도 있는 사상이론활동으로 인하여 통일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목표와 실현경로가 뚜렷이 밝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계속)

통일여명 편집위원 강인규
(통일여명 편집국 보도 26호)

조국통일3대헌장

통일운동의 진두에 서시여 (5)

향도의 태양 김정일장군

미국과 이남위정자들의 파쑈적폭압과 분렬주의적책동에 격분한 이남민중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에 분기하였다.

1980년 5월 광주민중봉기가 일어났다. 광주민중봉기는 이남의 각계각층 민중을 반미자주의식으로 각성시키는데서 전환적계기로 되였다. 광주민중봉기는 통일만이 이남민중을 살리는 길이며 반미자주화만이 통일을 이루어내는 길임을 가르치는 피의 리정표였다.

이런 정세에서 **김정일**령도자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통일대강,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추진하시였다.

그분께서는 이해 11월 이북의 제 정당, 사회단체 련석회의에서 남과 해외의 민주인사들과 정당, 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준비위원회를 내올 것을 제의하는 편지를 보내며 이를 위한 예비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가질것에 제안케 하시였다.

이남의 각계각층 민중과 해외교포들은 통일련방국가 창립방안을 ≪공명정대한 통일헌장≫,≪어둠을 밝혀주는 등대≫로 평가하고 이를 지지환영하는 성명과 담화를 련속 발표하였다. 또한 세계여론 역시 이북의 련방국가창립방안과 10대시정방침을 지지하였다. 세계각국의 정부, 정당들에서 이를 지지하는 편지와 축전을 보내오고 성명, 담화, 호소문들이 발표되였다. 이와함께 이 방안의 실현을 촉구하는 세계대회, 국제회의들이 열리고 여러나라들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지지위원회≫를 비롯한 련방제통일을 지지하는 단체와 조직, 기구들이 결성되고 국제사회의 지지서명운동이 광범하게 벌어졌다.

경애하는 **김정일**령도자께서는 1982년 2월 통일련방국가창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남과 북, 해외의 정치인련합회의소집에 관하여 제안케 하시였다. 다무적원탁회의의 형식으로 될 정치인련합되는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을 포함하여 제기될수 있는 모든 통일방안을 토의하고 남북의 합작, 교류의 실현문제로 합의할수 있다는 것이 명시되였다.

그리고 남과 북, 해외에서 참석할 1백여명 인사들의 명단이 발표되였던 것이다.100인의 련합회의 소집제의와 그 참가자명단이 발표되자 내외여론은 이를 한결같이 지지환영하였다.

이남의 각계층 민중과 해외교포들과 정계, 사회계 인사들은 분렬주의적인 ≪유신≫독재의 탄압책동속에서 련합회의소집을 위한 정치운동을 거세차게 벌리였다.

(끝)